



- ☀ 언 제 : 2013년 5월 29일(수) ~ 6월 8일(토)
- ☀ 어 디 서 : 제주도 전역
- ☀ 언 제 : 2013년 6월 8일(토) ~ 6월 9일(일)
- ☀ 어 디 서 :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
- ☀ 언 제 : 2013년 6월 10일(월) ~ 6월 15일(토)
- ☀ 어 디 서 : 타대안학교 체험
(산돌학교, 금산간디학교, 산청간디고등학교, 꽃피는 학교 고등과정, 산티학교, 지혜학교)
- ☀ 언 제 : 2013년 6월 15일(토) ~ 6월 16일(일)
- ☀ 어 디 서 : 공주에서 마무리 모임
- ☀ 함 께 해 요 : 교사 김수자, 김수진, 오피션
학생 권효연 김민정 김성혁 김예림 김지형 김태우 노시정 노영빈 박

상연

서명아 서하린 손채은 송륜근 안다연 이가원 장우정 정기완 조

익준

최형규 한상혁 한승희 (가나다 순)

움직이는 학교 가는 길	3
배낭 꾸리기	4
제주도 지도	5
제주도 개괄	6
제주도 생활 & 문화	12
제주도 평화 & 역사	28
제주도 생태 & 환경	43
제주 장애인 요양원	50
꼭! 약속해요	52
어떻게 식사하나?	56
타대안학교 체험 - 산돌 학교	57
타대안학교 체험 - 금산간디 학교	62
타대안학교 체험 - 산청간디고등학교	66
타대안학교 체험 - 꽃피는 학교 (고등과정)	71
타대안학교 체험 - 샬티 학교	75
타대안학교 체험 - 지혜 학교	82
4.19 혁명과 6.10 항쟁	87
증심사	89
비상연락망	93

움직이는 학교 가는 길

참가 : 3학년 학생 21명 + 김수자, 김수진, 오피선

● 3학년 '움직이는 학교' 전체 일정

5월 29일 수 오후 12:00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모여 완도여객터미널로 이동
(광주종합터미널(유스케어) "다"하차장 옆 한일카훼리 사무실 12:50분 버스)
16:00~18:50 (한일카훼리 1호)

5월 29일 수 ~ 6월 8일 토 제주도 활동

6월 8일 토 ~ 6월 9일 일 제주도에서 완도로 나와 곧장 광주로 달려...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

6월 10일 월 ~ 6월 15일 토 삼삼오오 흠어져서 타대안학교 체험

6월 15일 토 ~ 6월 16일 일 공주근처에서 1박2일하며 총 마무리모임

6월 16일 일 ~ 각자 집으로... / 결과자료집 준비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오전	오후	저녁	
5/29 (수)			12:00 광주버스터미널 모임 무료셔틀버스로 완도이동 4:00 한일카훼리1호	6:50 제주 도착 8:00 숙소 이동 저녁식사	절물자연휴양림
5/30 (목)	제주 O.T. 제주 역사	(강사: 고제량 선생님) 제주 오리엔테이션 동백동산 용암동굴, 용눈이오름	낙선동성터 4.3. 평화공원	절물휴양림 산책 및 탐방	
5/31 (금)	제주 생태	(강사: 문용포 선생님) 절물 오름	교래 갯자왓 만장굴	봉사활동이란?	
6/1 (토)	더불어살기-봉사	제주 장애인 요양원 (식사 도움, 목욕 봉사, 청소, 빨래)			돌살이학교
6/2 (일)	강정마을	표선민속박물관/김영갑갤러리 택 1 (미션 : 인증샷 찍어오기)	강정마을로 이동	평화행동	강정마을 숙소
6/3 (월)	올레길	10:00~12:00 EM센터 체험(흙공만들기)	올레길(모듬별) - 미션 : Hi! 제주		개인별장
6/4 (화)	제주 중심	한라산 등반 (영실 ~ 어리목)	서귀포 장날		
6/5 (수)	올레길	올레길(모듬별) - 미션 : I Love ! 제주	모슬포항 집결 오후 3:00 마라도 행 배	마라도 등대 설명 기원정사 설명	기원정사
6/6 (목)	땅끝	기원정사 아침 예불 10:30배로 다시 제주로 이동	제주시내 모듬별 미션 돌문화공원	제주생태관광 소개 백일장	제주 생태 관광 숙소 '이울락'
6/7 (금)	제주 바다 제주도활동정리	돌하르방 공원	함덕해수욕장 물놀이	제주도활동 총 평가+설문	
6/8 (토)	안녕-제주야!	제주-완도 8:20분 한일 카훼리1호	11:30 도착 조별이동 증심사 집결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	증심사
6/9 (일)	템플스테이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	체험학교로 이동		
~ 6/14 (토)	타대안학교 체험	산청간디학교 - 시정, 룬근 산돌학교 - 하린, 기완, 태우, 예림 금산간디학교 - 명아, 효연, 우정, 승희 꽃피는 학교 - 형규, 영빈, 다연, 채은 산티학교 - 민정, 지형, 가원, 상혁 지혜학교 - 익준, 성혁, 상연			
6/15 (토)	타대안학교체험정리			숙소로 모임 타대안학교체험정리	공주 명아할머니댁
6/16 (일)	go 홈		각자 집으로 이동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만남은 5월 29일(수) 오후 12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 개인별 준비물 >

- * 19일간 모든 활동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물 챙기기
-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 * **옷** : 반팔티셔츠 3, 반바지 2, 긴 바지 1, 긴팔 옷 1, 여벌옷. 속옷 3-4벌, 양말 2-3켤레 (속건성 옷이 좋아요)
- * **신발** : 샌들 및 슬리퍼, 운동화 혹은 경등산화
- * **기타** : 침낭, 배게, 손전등, 부채, 비옷(혹은 판초우의), 우산, 배낭덮개, 모자, 손수건, 손목시계, 읽을 책 2-3권, 지갑, 학생증, 휴대용 휴지
- * **필기도구** : 개인수첩, 필기구
- * **배낭은 두 종류를 준비합니다.** 큰 배낭(30리터 전후)은 개인 짐을 모두 담습니다. 작은 배낭은 외부활동 및 체험 때 메고 다닙니다. 짐은 최소로 하며 배낭을 져서 두 손이 자유롭도록 합니다.
- * **세면도구** : 치약, 칫솔, 수건 2-3장. 반드시 환경제품으로 준비해옵니다. 샴푸와 비누는 비누공장 제품을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 * **도시락통, 개인수저와 젓가락, 개인컵, 물통** : 점심식사는 대부분 개인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예정이니 밥과 반찬을 담을 수 있는 도시락통과 수저, 물통이 꼭 필요해요.
- * **비옷** : 야외활동이 많아요. 비가 오더라도 대부분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되니 꼭 챙겨오세요.
- * **개인약품** : 개인적으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 케이스도 잊지 말고 챙깁니다.
- * **T-머니 카드** : 대부분 이동을 대중교통으로 할 예정입니다. 학생카드할인이 되는 T-머니카드를 준비해오세요. 차감되는 공식 교통비는 따로 충전해드립니다.
- * **현금** : 학생 각자가 가져와야 하는 현금은 6월달 개인용돈 3만원 + 각자 집에서 광주버스터미널까지 오는 차비입니다. 이외의 현금소지는 불가합니다.
- * **가져오면 좋아요!!** : 등산용 방석, 지퍼백, 부채, 손전등
- * **체험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 : 체험하러가는 학교에서 필요한 특별한 준비물이 있으면 가져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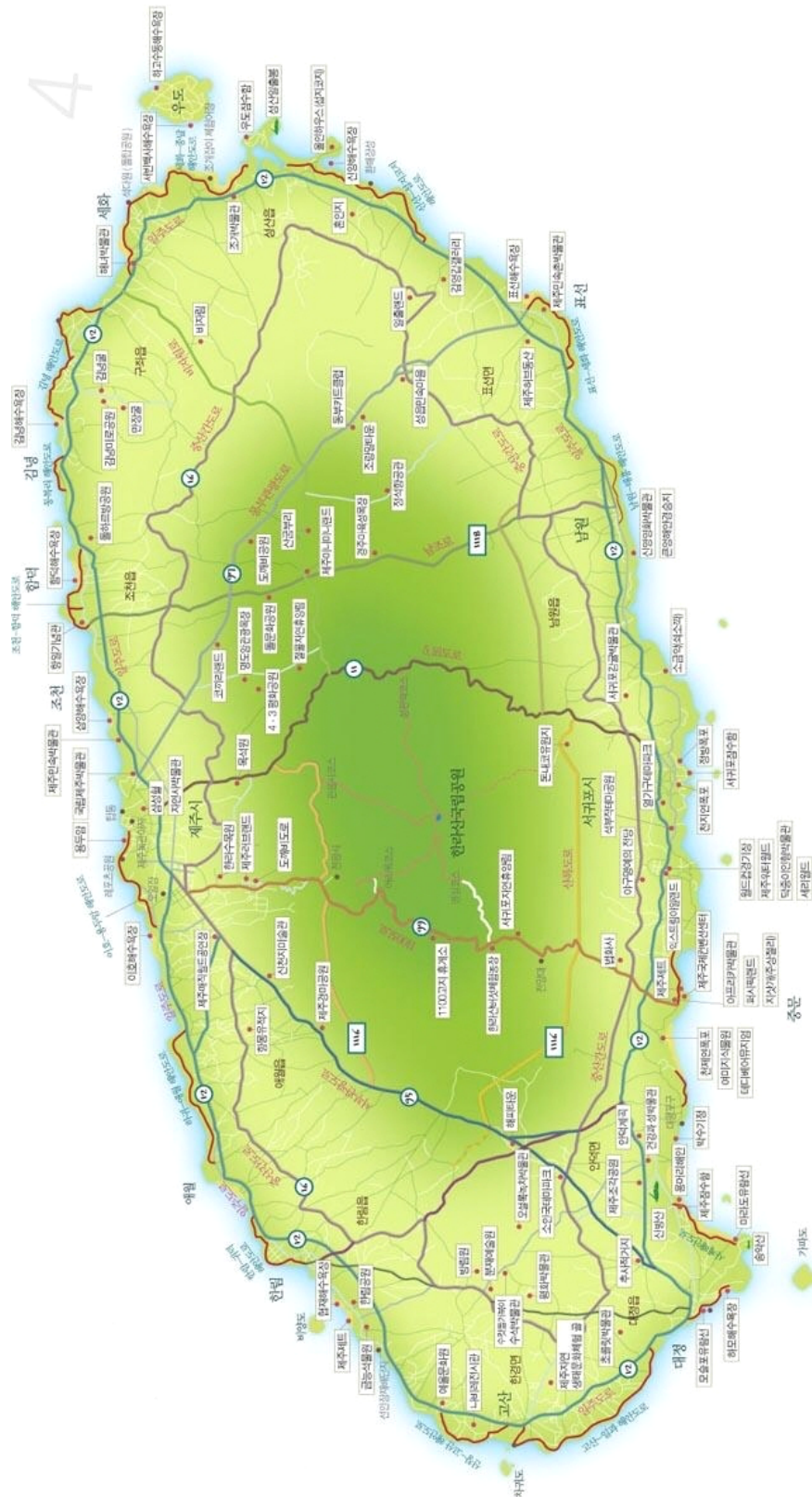
< 학교 준비물 >

- * **주방 도구** : 아이스박스, 밥솥, 냄비 3개, 욕, 프라이팬, 식판, 국그릇, 냉면그릇, 주걱, 국자, 뒤집개, 가위, 집게, 칼, 도마, 나무수저, 가스버너 2개, 채반, 설거지도구(한살림 세제, 수세미), 위생장갑, 고무장갑, 비닐팩, 지퍼팩
- * **부식거리** : 쌀, 잡곡, 김치, 김, 라면, 감자, 밀가루, 채식식품
- * **양념** :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진간장, 국간장, 다시마, 국멸치, 식초, 파, 마늘, 식용유, 소금, 설탕 참기름, 들기름
- * **스타렉스** : 차량 등록증, 비상장구, 네비게이션
- * **공동 생활용품** : 모기향 및 홈매트, 생리대 (유기농 본), 빨래용 대야, 빨래집게, 빨래줄, 빨래비누, 화장지, 휴지
- * **기타** : 노트북 4대, 사진기, 생명평화 100배 CD, 아광봉, 손톱깎이, 학교소개자료집 및 홍보물, 학교봉투, 자료집, 문구류, 비누공장 선물세트, 의약품, 영상무명천 할머니, 레드헌트, 평화공원영상, 섬의 하루, 아동도서관, 올레길 가이드북 4권, 사전자료집 10권

< 배낭 싸는 방법 >

1. 무거운 것을 위쪽, 몸 쪽에 담는다.
 2. 활용빈도를 고려해서 짐을 싣는다.
 3. 어깨끈 허리벨트 가슴벨트 스트랩으로 무게를 분산시킨다.
 4. 작은 가방에는 안경, 필기도구, 손수건, 휴지 등을 넣는다.
 5. 큰 배낭의 경우, 바닥부터 침낭 ▶ 여벌옷 ▶ 잠바(비옷) ▶ 물 ▶ 손전등, 세면도구, 배낭덮개 등의 순서로 짐을 차곡차곡 싣는다.
- * 이동이 많으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꾸립니다.

제주도 지도



- 제주도 -

총면적: 1,849.2km²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질: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와 기생화산에서 분출한 화산쇄설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의 점사질 토양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흑갈색의 화산회토로 덮여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약 56만 명 정도이다.

- 제주도 간단소개 -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특별자치도로,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동쪽으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대마도 및 큐슈 지역, 서쪽으로 중국의 상하이와 마주하며,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마주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 북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부속섬은 8개의 유인도와 82개의 무인도가 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섬의 중심에 한라산이 있으며, 중산간 일대에는 기생화산인 오름과 더불어 광활한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다.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데, 한라산 이북의 제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서귀포시는 한라산 남쪽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현재 2시 7읍 5면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외교, 국방, 사법(재판하는 일) 등을 제외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다.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 경영하기가 편한 국제자유도시 체제로서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¹⁾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원만한 행정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결정,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의료·관광 개방이 이루어져 특별자치도의 자치가 최대한 확장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또 유·초·중등 및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파격적으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의료·교육·정보통신산업 등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받지 않으며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

1)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그 지역 단체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국 등 8개 국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이윤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²⁾,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며 외국인 전용약국도 문을 연다.

특별자치도지사에 소속된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지원 등과 같이 특별자치도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어 많은 부분에서의 개혁이 예상된다.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1,060여건이 제주지사에게 넘겨지고, 연내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정한 8,000여 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만 정해둘 예정이다.

-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이유 -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와 7읍 5면 31개동의 행정체제를 갖춘 자치도로 발전하였다. 한국 최초로 시·도급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정부분 자치행정권을 부여받은 지역이다.

제주도가 21세기 동아시아시대의 교두보로 역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게 된 것은 기존 제주도의 행정체계로는 육지의 시도와 차별화되는 효율적인 행정이 곤란한데다 1980년대 말부터 근래까지 제주도 관광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계하는 거점지로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치도란 국방 외교권만 없는 제주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행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구역 권한 부여인 셈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현재 홍콩이다 중국의 자치행정구가 홍콩이다.

- 지형 -

바다 속에서 화산분출활동이 일어나 형성된 화산섬이다. 하천은 비가 오는 시기에만 생겨나 겨울과 같이 비가 자주 안 오는 시기에는 마른다. 한라산은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구멍이 많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해안에서 용천으로 솟아오른다. 토양은 주로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농사에 걸림돌이 된다.

- 기후·식생 -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해양성 기후³⁾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한라산은 아열대온대냉대의 기후대⁴⁾가 모두 나타나며 18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수직적으로 분포한다. 즉 밑에서부터 아열대 잎이 넓은 활엽수림, 온대 활엽수림, 냉대의 잎이 침 모양인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기온과 강수량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한라산의 남쪽 경사면이 북쪽 경사면 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때문에 서귀포시에 감귤농사가 발달하였다.

8월 평균기온은 육지와 큰 차이가 없으나 1월 평균기온은 제주시가 52°C, 서귀포가 60°C로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는 육지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또한 바람이 다른 지역 보다 많은 편이다. 특히 태풍의 주요 이동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가

2) 지금의 보건소나 국립병원을 제외한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병원(삼성의료원이나 대학병원)은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오직 병원의 시설 등에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병원의 수익은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3) 기후는 크게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로 나뉜다. 대륙성 기후는 내륙 지역에 해양성 기후는 해안 지방에 나타난다. 해양성 기후는 강수량이 많고 밤과 낮의 기온차이인 일교차가 작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4) 온도가 높은 순으로 열대 > 아열대 > 온대 > 냉대 > 한대

많다. 아열대 기온지역에는 가시나무·후박나무·녹나무·참식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림이 널리 분포했으나,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림은 대부분 사라지고 안덕계곡이나 섶섬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지역에만 남아 있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농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는 소나무·삼나무 등의 인공림이 널리 분포한다. 특히 감귤 밭의 방풍림(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조성된 삼나무 군락은 제주도 지역의 특이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인구 -

제주도는 수도권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도들과는 달리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들이 1960~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이촌향도(떠날 리離, 촌 촌村, 향할 향向, 도 시 都) 현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이후 바나나·감귤 등 상품작물의 성공적인 재배로 농가소득이 증대하고, 관광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른 외지인들의 유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인구 재분포 양상을 보면, 제주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나머지 지역들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제주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1960년에 24.2%에서 1990년에는 45.2%, 그리고 1995년에는 처음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51.1%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무려 54.4%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집중은 교육서비스의 질적 차이 외에도 제주시가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편익시설을 상대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구 분포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0여 개의 정부 관련 기관들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거주 -

제주도 내 557개 마을은 2개의 시와 12개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서비스 중심지로 해 다양한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마을들은 대부분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개 농업과 어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한다. 도내 전체 도시지역의 면적은 391.89km²로 전체 면적의 18.9%에 해당하며, 도시지역 내에는 전체 인구의 89.4%가 거주한다.

1970년대 초반에 제주도를 본격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제주시의 원래 중심지인 관덕정 서쪽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했는데, 이곳에는 특급관광호텔과 쇼핑센터, 그리고 각종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다.

한라산 남쪽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남단의 도시 서귀포는 온화한 기후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이다. 원래는 시내 동남쪽 해안에 시청과 항구 등이 있어 인구가 밀집해 있었으나, 1986년부터 서쪽의 강정서호법한동 일대에 대규모 신시가지 건설하고 이곳으로 시청이 이전하였다. 2002년에는 월드컵축구경기장이 건립되어 서귀포시의 중요한 상징 역할을 하고 있다.

- 환경 -

제주도는 음용수를 비롯한 모든 용수의 공급을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질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수량이 적어 지하수 함량이 줄어든 반면 지하수 개발량은 급증해 지하수위가 도전체로 평균 37m나 낮아졌으며, 제주시 일부지역에서는 72m나 낮아져 지하수 고갈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해안지역에서는 염(소금) 오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하수 및 사업장의 폐수, 가축분뇨,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살포 등으로 해발 200m 이하의 지하수들은 상당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골프장갑골발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해 토양오염은 심각한 편이다. 제주는 깨끗한 환경 자체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지역 고유의 보다 강화된 환경지표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중산간지역의 보전이용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해발 200~600m의 중산간 589km² 중 137km²는 일체 개발이 금지되는데, 이 지역은 지하수보전 1등급, 생태계 보전 12등급, 그리고 경관보전 1등급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거나 희귀한 동식물 분포지 또는 경관이 뛰어난 지역들이다.

- 산업 -

제주도는 경제활동 참가인구가 약 29만1000여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700%에 이르러 전국 평균 620%보다 높은 편이다(2005).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도민 1인당 연간소득은 1,313만원(2004년)으로 전국 평균의 80.5%에 불과하다.

지역총생산액(GDP)은 7조49억원으로 지난 5년 사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1인당 주민소득의 격차는 전국 평균 보다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산업구조면에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들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농림어업 14.7%, 광공업 3.3%, 서비스업 72.0%이며, 취업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24.5%, 4.3%, 71.2%를 나타낸다. 이를 전국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 2차 산업은 대단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 농업 -

제주도의 1차 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을 형성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3차 산업에 비해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제주 지역의 1차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이 시장 개방과 과잉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의 경지 면적(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5만9000ha로 전체 면적의 19.2%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중 논 면적은 170ha에 불과해 거의 전적으로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업은 1970년대 이후 커다란 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1970년 재배면적이 2만5003ha로 가장 컸던 맥류(보리나 밀 종류)는 2005년에 2943ha로 크게 감소했으며 고구마·유채 등도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감귤·감자·마늘·당근·양배추 그리고 화훼류(꽃처럼 관상용 식물) 등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60년대 후반 농어민 소득증대특별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감귤산업은 1996년의 경우 3만6055호의 농가가 2만5802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60만t을 생산해 6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적도 있으나 이후 재배 면적과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귤의 대체 작목으로 녹차, 더덕, 그리고 한라봉 등 다양한 열대작물의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 임업, 어업, 축산업 -

산림면적은 9만1259ha로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며, 이중 사유림(개인소유)의 숲이 약 60%이다. ha당 임목축적량은 86.8m³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다. 임산물 생산은 퇴비사료 등 농용자재 생산과 목재 등 용재 생산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밖에 산나물·표고버섯 등이 주요 소득원을 이룬다.

제주도 해역은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와 한류인 황해 해류 등⁵⁾ 여러 해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한다. 대부분 소형 어선에 의존하는 연근해어업⁶⁾이 주종을 이루는데 성산포·서귀포·한림을 거점으로 옥돔·복어·갈치잡이, 추자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기·삼치잡이, 그리고 전 연안에서 오징어·갈치잡이가 활발하다. 마을어업⁷⁾은 전체 어업총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5600여 명의 해녀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데, 이들은 128개 1만514ha에 이르는 마을어장에서 소라·전복·우뚝가사리·툫·성게 등을 채취한다.

만⁸⁾의 발달이 미약하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바다양식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온대성 어류의 성장에 적합한 지하해수 개발과 월동월하(겨울나기·여름나기)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육상양식업이 발달하였다. 성산포를 중심으로 동남해안 일대에 100여 개 이상의 양식장과 종묘배양장이 있으며 넙치와 전복 양식이 활발하다.



- 조선총독부가 찍은 제주 해녀의 모습 -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해 목초가 잘 자라고, 광활한 해발 200~600 m의 중산간지대에 대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등 축산업 발달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조천읍 교래리의 제동목장과 한림읍 금악리의 이시돌목장을 비롯해 송당목장·건영목장 등 대규모 목장들이 모두 중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축산농가는 약 5600가구, 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만2000여 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청정환경에서 사육한 돼지고기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양돈에서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1차산업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편, 제주조랑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주마 사육이 권장되고 종마⁹⁾육성장이 설치되면서 말 사육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5) 해류는 계속 순환하는 바닷물의 흐름 중 비교적 일정하기 흐르는 흐름을 말한다. 크게 따뜻한 흐름인 난류와 차가운 흐름인 한류로 나뉜다.

6) 항구나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하는 어업, 멀리 나가 고기 잡는 것은 원양어업이라 함.

7) 어촌계나 지역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하는 어업.

8)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은 꽃이라 하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곳은 만이라고 한다. 만은 파도가 크지 않고 태풍이 와도 영향이 크지 않아 항구가 발달한다.

9) 품종이 좋은 씨수말.

- 관광·서비스업 -

3차 산업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제주지역 총생산의 약 1/3을 차지하며 감귤산업과 함께 제주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1990년대 초까지는 제주가 지닌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이채로운 전통문화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호황을 누려 왔으나, 해외여행의 자유화, 서비스시장 개방 등 외적 요인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약화, 홍보부족 등의 내적 요인이 겹쳐 최근에는 성장이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내국인 464만1000명, 외국인 37만9000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국제적인 관광지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체 관광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10% 미만이 제주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의 유형별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내국인 관광객 중 지출성향이 높은 신흥부부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학여행·골프관광객·가족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통업의 발달은 미약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형 유통할인매장이 입지하면서 유통업에 일대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 교통 -

한반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지역과의 왕래는 항공과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 내에서는 국도와 지방도가 주요 교통로이다. 다른 지방과의 연결교통 이용현황을 보면, 항공편이 92% 정도를 차지해 관광객이나 제주도민 모두 선박보다는 주로 항공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2004년 현재 연간 1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수가 많다. 국제항공노선은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태국 방면으로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특히 오사카도쿄·나고야 등 일본과의 운항이 많은 편이다.

선박교통은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부산, 제주~인천, 제주~녹도 간 정기여객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모슬포와 마라도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도 운항 중이다. 그밖에 인근 가파도와 마라도, 우도를 연결하는 연안여객선이 매일 운항된다.

도로교통으로는 국도 11번과 99번이 각각 한라산 동쪽과 서쪽 산록을 횡단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며 국도 12번과 16번이 해안순환도로 기능을 한다.

서귀포시 성산포와 전라남도 고흥을 잇는 2개의 해저광케이블과 제주시 삼양동 북제주화력발전소와 전라남도 해남을 연결하는 1개의 해저광케이블이 개설됨으로써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 케이블TV, 화상전화, 영상회의, 초고속인터넷 및 비디오텍스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고속데이터 전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섬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홍콩·일본·미국을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이 성산포를 기점으로 연결됨으로써 성산포는 국내와 국제 광통신망이 교차하는 우리나라 첨단통신의 국제공항으로 부상하였다.

3학년 익준, 명아, 효연,

- 먹거리 -



갈치호박국

1. 갈치호박국

갈치호박국은 낚시로 잡아 올린 갈치를 토막 썰어 펄펄 끓는 물에 넣은 후 늙은 호박과 풋고추 그리고 배추 등을 넣고 약간의 마늘과 소금 간을 하고 나서 먹는데 고운 고춧가루를 뿌려 약간 맵게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갈치는 9월~10월에 많이 잡히는데 이때부터 맛이 들기 시작하여 겨울이면 최고에 이른다. 하얀 갈치 살이 쫄깃쫄깃 씹히는 갈치는 고소한 뒷맛이 일품이다. 갈치호박국은 갈치를 넣어 끓인 후 호박과 야채를 넣으면 더욱 구수한 맛을 낸다. 호박 대신 숙은 배추를 넣고 끓인 갈치국도 맛이 좋다.



옥돔구이

2. 옥돔구이

맛이 담백하여 한 번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시 찾게 되는 옥돔은 제주도 연안과 일본 근해에서만 잡히는 어종이다. 제주에서는 주로 '생선' 또는 '솔라니'라고 부르는데, 11월~3월중에 잡은 옥돔을 넓적하게 펴서 햇볕에 반쯤 말린 후 참기름을 발라 구워먹는 옥돔구이는 맛이 일품이다. 옥돔은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허약 체질이나 병후 회복기 환자들이 죽으로 끓여 많이 먹는다.

3. 성게국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한소끔 끓으면 성게 알을 넣고 끓여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한 것으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이다.

성게는 5월말에서부터 6월 사이의 제주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제주에서 자연 서식되는 성게는 보라성게로서 껍질을 깨면 노란 살이 있으며, 달콤한 맛이 있고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많아서 건강식으로도 좋다. 제주에서는 성게를 '구살'이라고도 불러 성게국을 구살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게국



빙떡

4. 빙떡

메밀가루 전병에 채 썰어 데쳐낸 무소를 넣고 말아서 만드는 제주도의 향토떡이다.

미지근한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한 메밀가루 반죽을 둥글납작하게 지진 다음 굵게 채 썰어 폭 삶아 물기를 뺀 무에 쪽파, 참기름, 소금, 깨소금으로 양념하여 만든 소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만든다. 빙떡은 통째로 손에 들고 먹는다. 여기에 좁쌀로 빚은 청주 한잔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안주거리이다.

5. 해물뚝배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에는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많다. 그 가운데 대중적이면서 비교적 값이 싸 제주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 중의 하나가 해물뚝배기이다.

된장뚝배기와 비슷하나 전복새끼라고하는 오분자기와 조개, 성게알, 오징어, 새우 등 다양하고 신선한 해물과 두부, 썩갠 파 등 야채를 넣어 된장으로 맛을 내며 바다냄새와 해산물에서 우러난 국물이 된장맛과 어우러져 시원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별미이다.



해물 뚝배기

6. 말고기

말은 옛날에 왕의 수라상에 진상되었던 최고급 음식이었다. 말은 마육회, 마초밥, 탕수육, 갈비찜, 생구이, 불고기 등의 음식으로 응용된다. 말고기는 살코기를 비롯해 내장이나 생간 등이 소고기보다 담백하고 부위별 맛이 다양하다.

말고기에는 피부보호와 체장기능향상에 도움을 주는 팔미톨레산의 함유량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보다 월등히 높다. 또 말고기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성인병을 예방해 주고, 사르르 녹는 듯 부드러운 육질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말고기

7. 흑돼지불고기

오래전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길러 왔으며 경조사에는 집에서 키운 돼지를 잡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보다 제주의 돼지고기 맛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옛 부터 집에서 돼지를 잡을 때 그을리기 때문이다. 제주말로 "그실린도새기"라고 하는데 돼지털을 없앨 때 전초를 이용하여 태워 버리기 때문에 전초의 향이 고기 속에 배어 맛이 특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주의 토종돼지는 털이 검어 '흑돼지'라고 하는데 들판에 자연방목을 하기 때문에 돼지비계도 씹는 촉감이 좋을 뿐 아니라 육질은 쫄깃쫄깃하고 영양이 많으며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일반돼지보다 고기 맛이 아주 고소하다.

제주토종 흑돼지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여 구워낸 불고기나 생고기를 그대로 구워 소금장에 찍어 먹는 그 맛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내어 씹을수록 구미가 당기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돼지불고기



오분자기 솔밥

8. 오분자기솔밥

오분자기는 제주도가 전체의 약70%를 생산하는 전복과의 패류로서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고급수산물로 영양분이 풍부하여 건강식으로 아주 좋은 식품이다. 오분자기돌솔밥은 전복의 새끼격인 오분자기의 오독오독 씹히는 맛과 향긋한 표고버섯등이 어우러져 특색있는 맛을 낸다. 영양식으로 좋은 오분자기 돌솔밥은 사골육수 국물에 보리콩과 오분자기를 넣어 만드는데 맛의 비결은 갖은 양념을 한 양념간장과 마가린으로 입맛에 맞게 적당히 넣어 비비면 군침도는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돋운다.



전복죽

9. 전복죽

조개류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싸며 여름철에 특히 맛이 좋은 전복은 옛날 진시황이 불노장생에 좋다하여 널리 구한 것 중의 하나로서 제주 전복은 옛 부터 그 명성이 자자해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전복은 체내흡수율이 좋아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의 건강에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복죽은 전복을 얇게 썰어 참기름에 살짝 볶은 후 물에 불린 쌀을 넣어 죽을 끓이면 쫄면 국물과 재료가 어우러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10. 자리회&자리물회

자리는 제주의 맛을 대표하는 바다고기로 제주도의 여름 식단에 반드시 오르는 명물 중의 하나이다.

자리는 자리돔이라 불리는 붕어만한 크기의 돔 종류로 칼슘이 풍부한 바다 고기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그물로 건져 올린다. 자리회는 지방,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물회, 강회, 자리젓, 소금구이 조림 등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다. 자리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징 때문에 여름철 제주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자리회&자리물회

11. 고기국수

제주도의 '고기국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로 돼지를 고아낸 육수에 수육을 얹어서 만든 국수입니다. 고기국수는 돼지를 잡고 남은 뼈와 잔고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큰 솥에 남은 재료를 모두 넣어서 고아낸 뒤에 면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에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고기국수는 마을잔치날이나 경조사(경사스런 일이나 불행한일)때 손님들에게 대접했으며 간단한 식사나 해장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제주도 향토 음식이라고 한다.

고기국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진 것은 불과 30~40년 전

고기국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진 것은 불과 30~40년 전이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고기국수 뿐만 아니라 여러 향토음식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대량으로 제주도에 들어왔고 그

때문에 여러 음식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몇 가정만 전통을 유지해서 고기국수를 만들고 있었고 1970년에 비로소 육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고기국수 형태는 1950년에 비로소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논농사를 짓기 힘든 환경 이었던 제주도는 메밀면과 같은 식감이 거친 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민들에게 육지에서부터 들어온 건면은 메밀면과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메밀면보다 건면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의 고기국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기국수

12. 제주도 몸국

몸국은 '모자반국'의 사투리이며 중요한 일을 치를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입니다. 몸국에서 그 '몸'은 모자반이라고도 불리며가치가 많은 해조류로 지방질,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바닷가 바위틈에서 많이 자라며 연한 것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이용합니다. 돼지 잡아서 그 고기 삶은 물에 마지막에 순대를 삶는데 다 끝나면 국물이 육수로 맛이 엄청난데, 거기에 모자반과 고기, 순대 등을 넣고 끓여서 잔칫날 손님들 대접하는 국입니다.

그 국을 몸국이라 부르는 곳도 있지만 '물망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몸국

- 제주도 해녀 -

제주도의 해녀는 '잠녀', '잠수'라고도 한다. 해녀들은 특별한 장치가 없이 나잠어업¹⁰⁾으로 제1종 공동어장인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전복·미역·톳·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의 해녀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 거의 모두가 제주도 해녀들이다.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이며, 그 기원은 자연발생적인 생업수단의 하나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해녀들에게 특수한 혈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어렸을 때부터의 수련에 의하여 그 기량을 배워 익혀서 어로작업을 한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헤엄치기와 무자맥질¹¹⁾을 배우다가 15, 16세에 이르면 독립된 해녀가 되는데, 해녀생활은 대체로 60세 전후까지 이어진다.

채취물의 금채기가 풀릴 때에는 70고령의 노파들도 며칠 동안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기량의 숙달 정도에 따라 해녀에는 상군 중군 하군의 계층이 있다. 해녀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겸하고 있어서 물질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농사일을 치르는 사이에 물때에 맞추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므로, 이들의 발은 물과 바다에 걸쳐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발일과 물질을 한나절씩 치르는 경우가 흔하다. 해녀작업은 봄에서 가을까지, 특히 한 여름철에 성행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많다.

10)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 밑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11)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

해녀들은 바다 속에 무자맥질하여 보통 수심 5m에서 30초쯤 작업하다가 물 위에 뜨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심 20m까지 들어가고 2분 이상 물 속에서 견디기도 한다.

물 위에 솟을 때마다“호오이”하면서 한꺼번에 막혔던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이색적인데, 이 과도환기작용을‘숨비소리’·‘숨비질소리’또는‘숨비소리’·‘숨비질소리’라 한다. 이웃과 함께 바닷가에 나간 해녀들은 간편하게 마련된 탈의장이나 바위틈에서‘물웃’이라는 해녀복으로 갈아입고,‘눈’이라고 하는 물안경을 낀다. 오늘날의‘왕눈’이라는 물안경은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족세눈’이라는 쌍안경을 사용하였다.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하여 가슴에 안고 헤엄치는‘테왁’밑에는 채취물을 담은 자루 모양의‘망시리’ 또는‘망사리’·‘망아리’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 해녀들이 무자맥질할 때에는 이‘테왁’과‘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둔다. 그 밖의 기구로는 전복 등을 캐는 길쭉한 쇠붙이인‘빗창’, 해조류를 베는‘정게호미’라는 낫과 조개 등을 캐는 쇠꼬챙이 갈퀴인‘갈고리’등과 물고기를 쏘아 잡는‘소살’이라는 작살이 있다.

제주해녀들은 20m의 바다 속까지 들어가 2분 남짓 견딜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물질할 수 있는 내한력을 갖추었으며, 분만 전후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비상한 기량과 정신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달리 평가된다. 더구나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역동적인 민요 <해녀노래>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사설에서도 해녀들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난다.

- 제주도 설화 -

제주도는 교통이 불편하던 조선시대 당시 죄인을 제주도로 유배 보낼 만큼 멀고 고립된 곳이었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설화들이 많이 생겼고, 특이한 제주도의 환경도 그에 영향을 끼쳤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만큼 과거엔 주로 어업과 농업에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고마움과 두려움이 컸다. 바다는 각종 해산물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것이면서도 심한 풍랑으로 어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두려운 존재였다. 그러한 이유로 제주도 사람들은 배가 난파되어 빠져 죽어도 단순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비의 섬 이어도에서 산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이나 그 주변의 오름도 설화를 꾸며낸 제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또한 제주도에 서는 전통적으로 제주도여성이 밭일하고, 아이를 기르고, 집안 꾸러나가는 등 모든 일을 떠맡아 했다. 덕분에 제주도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힘들었고, 제주도의 설화에도 여성이 적극적이고 강하게 그려진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1) 오돌또기 민요

아주 옛날에 제주도의 어느 마을 김복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성품이 곧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효자 김복수는 홀어머니와 동네사람들이 과거시험을 보라는 권유로 시험을 보러 갔다. 청년이 떠나는 날에 햇살에 빛나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주도를 벗어날 쯤에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와 배가 난파되었다. 목숨을 겨우 건진 김복수는 파도에 따라 어느 곳에 떠내려갔는데 눈을 뜨자 앞에 어여쁜 처녀가 간호를 하고 있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임춘향으로 유구(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전해지는 나라)사람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오라버니를 만나러 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 안남(베트남)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김복수와 임춘향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금슬이 좋은 부부가 되어 자식을 3남 3녀를 누어 화목하게 잘 살았다. 김복수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만 제주도 고향에 남아있는 홀어머니와 동네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남에 고국의 큰 배가 도착하여 당시 여자는 배를 탈수 없기에 김복수 홀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데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배에 올라탔다. 일본으로 간 복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춘향이 오라버니를 만나게 되어 춘향을 보고 싶어하는 오라버니가 당장 안남으로 떠나자고 했다. 그들을 태운 배는 제주를 거쳐 가려는데 김복수가

제주도를 지날 때 물통에 구멍을 뚫어 바다에 빠뜨리고 제주에 잠시 배를 대고 물을 가지고가자고 했다. 마침내 제주에 온 복수는 집으로 가서 동네사람들과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배는 김복수를 기다리지 않고 안남으로 떠나버려 김복수는 부두에서 통곡을 했지만 춘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는 없었다. 그 날 부터 김복수는 가족이 생각나면 바닷가에서 오돌또기 민요를 흥얼거렸다. 어느 날부터 김복수가 보이지 않았고 동네에는 복수가 바다를 건너갔다는 소문과 배를 타고 춘향이에게 갔다는 소문만 퍼졌다. 지금의 오돌또기민요는 김복수와 임춘향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남아있다.

2) 매고할망

고려시대 말엽쯤에 제주의 한 마을(애월읍 광령리 인근)‘비신굴’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비신굴에는 유목민이 주로 살았다하여 부르는데, 이 처녀를 사랑하는 무지렁이 총각이 있었다. 하지만 처녀는 이 총각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의 소개로 이웃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버렸다.

이 무지렁이 총각은 그녀를 사모하는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접근하여 사냥을 함께 가자고 하였다가 그를 죽이고 혼자 마을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은 벌컥 뒤집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를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어 과부가 된 그녀는 혼자서 몇 년을 살았다.

그때부터 무지렁이 총각은 그녀에게 접근하여 궂은일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도와주었다. 몇 해가 지났고 그녀는 그가 자기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총각의 정성에 감복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한 해에 아들을 하나씩 낳아 일곱 형제가 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사냥과 농사 모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손을 놓고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는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보고 한참을 웃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인은“비가 와서 사냥도 못하게 되었는데 왜 웃으십니까.”별 일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실 웃는 남편이 이상해서 부인은 자꾸만 말해 달라 하였다. 남편은“세월도 이만큼 흘렀고 옛 남편은 잊었을 것이야. 아이들도 이미 일곱 형제나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설마 어찌지는 않겠지.”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여 그 때의 일을 모두 말해버렸다.

“마당에 떨어져 거품을 내는 빗물이 마치 당신의 전 남편이 죽을 때 흘리던 핏물 같아서 웃었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다음날 나무하러 가는 척하며 산에 올라가 전 남편의 시체를 수습하여 곧바로 관가로 달려가 통곡을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비신굴에 사는 아무개는 제 남편인데 살인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저와 결혼을 하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인자인 줄 모르고 함께 살며 아들형제를 일곱이나 낳아 살아왔습니다. 모두 죽여주십시오.”

“네가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죽이면 어찌 하느냐, 하나는 살리도록 하여라.”

“이런 종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찌하옵니까. 모두 죽여주십시오.”

결국,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죽인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손수 파고 질경이로 기름을 짜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는 작은 구멍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되면 그 구멍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열년라 하지만 자식들마저 모두 죽였기에 매정하다고 하여 '매고할망'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땅에 묻힌 할머니'라고 하여 '매고(埋姑)할망'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비신굴을 떠났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이 있었다

는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이제는 흔적조차 없는 마을이 되었지만, 비신굴에는 한때 행복하게 살았던 매고할망의 추억이 서린 '비신굴'에는 매고할망과 전 남편이 못 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제주도설화 선녀를 사랑한 용왕의 아들 - 섭지코지 선녀바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2km에 걸쳐 뻗어있는 섭지코지는 제주방언으로 코의 끝처럼 바닷가를 향해 뾰족하게 나온 땅을 의미한다.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절경으로 갈매기의 배설물로 마치 흰 눈을 덮어쓴 사람을 떠올리는 선녀바위다. 그래서일까? 아름다운 선녀바위에는 이뤄질 수 없었던 슬픈 사랑얘기가 전해져온다.

옛날 섭지코지는 선녀들이 밤마다 내려와 목욕을 하고 새벽이 찾아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던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즐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용왕의 막내아들이 그 모습을 훑쳐보게 된다. 선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용왕의 막내아들은 욕심을 내 더욱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인기척을 느낀 선녀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목욕하는 것을 훑쳐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날개웃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하늘로 올라갔다. 허둥지둥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 선녀들을 보고 화가 난 옥황상제는 다시는 섭지코지에 내려가 목욕을 하지 말라는 금족령을 내린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용왕의 막내아들은 매일 밤 섭지코지를 찾아가지만 선녀들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번 본 선녀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슬픔에 잠겨있던 용왕의 막내아들은 그만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용왕을 찾아가 선녀와 혼인하게 해 달라고 간청을 드린다. 아들의 지극한 간청에 못이긴 용왕은 섭지코지에서 1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100일째 되는 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니 그때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날부터 용왕의 막내아들은 섭지코지 한 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늘을 향해 치성을 드린다. 시간은 흘러 용왕이 약속한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낮에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졌으며 날은 밝아왔지만 애타게 기다리던 선녀들은 끝내 내려오지 않는다. 그 모습을 본 용왕은 막내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는데도 갑자기 맑던 하늘이 이처럼 성을 내는 것은 하늘이 너와 선녀와의 혼례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만 단념하라"고 한다.

그러나 선녀들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었던 용왕의 막내아들은 기도를 올렸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슬퍼하다 점 차 몸이 굳어져 비위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슬픈 짝사랑으로 끝난 섭지코지 선녀바위에 얹힌 전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과는 달리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용왕신의 아들의 애틋한 마음 때문인지 선돌 앞에서 사랑의 맹세를 하고 혼인을 하면 훌륭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돌하르방과 돌하르방 공원 -

돌하르방이란 말은 옛날에 생긴 이름이고 원래의 이름은 우석목, 무석목 벅수머리 등이다. 돌하르방이란 이름은 돌 할아버지의 제주어로서 1971년 문화재 이름으로 채택된 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돌하르방은 행정구역이 3분되었던 약500년 동안(1416~1914) 제주목, 대정진, 정의진, 도읍지 성문 앞에 세워 졌었다. 모두47개가 있었는데 경복궁 한국 민속 박물관으로 2개가 옮겨져 지금 제주에는 45개가 남아있다.



47개의 돌하르방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제주시의 것이 가장 커서 평균키 181.6Cm, 성읍리는 141.4Cm, 대정은 136.2Cm 인데 제주시의 것이 더욱 위용이 있고 예술성 있게 조각 되었다. 돌하르방의 주요기능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수호신적 기능과 주술 종교적 기능, 위치표식기능이다.

돌하르방 공원



제주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돌하르방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원이다. 자식을 바라는 여인이 몰래 돌하르방의 코를 쪼아서 물에 타 마시면 자식을 갖게 된다는 속설이 있어 제주의 하르방 들은 코의 형태가 망가져 있는 모습이다.

또한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기능도 했었다고 하니 제주의 민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북촌 돌하르방공원은 제주의 예술가들이 모여 하르방의 의미를 되새

기고자 돌하르방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딱딱하게 서 있는 돌하르방이 아니라 만남, 포용, 사랑의 표현, 꽃을 건네는 하르방 등 소박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다양한 자세와 얼굴 표정으로 조각된 돌하르방을 감상하며 때로는 웃음 짓고 때로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숲길을 따라가며 돌하르방을 감상하고 조용한 제주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돌하르방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원이다.

- 삼다도 -

1. 제주도가 삼다도, 삼무도라 불리는 이유

삼다도란, 제주도에 3가지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에 많은 세 가지는 각각 돌, 바람, 여자를 말하는데, 다른 것도 많고 많은 가운데 굳이! 그 세 가지인 이유는 이렇다.

2. '삼다'에 돌이 들어가는 이유

단순하게 제주도에 돌이 많은 이유를 따져 보자면 옛날 한라산의 화산활동 때문이다. 그 때문에 널리 널리 퍼져 있던 돌들을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돌덩이를 치워 밭을 개간했다. 그리고 포구를 만들어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방호소(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이 침략할 것 같은 곳에 설치하던 군대의 감시소의 성담을 쌓는 긴 과정을 통해 제주를 힘겹게 개척해 왔다. 이렇게 제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돌'을 삼다의 하나로 넣은 것이다.

3. '삼다'에 바람이 들어가는 이유

역시 석다(돌이 많음)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생존환경이 매우 각박함을 말해준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있어서 예로부터 제주도의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풍다(바람이 많음)의 영향은 석다와 함께 제주의 생활모습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돌울타리를 쌓고 나직한 지붕을 새(띠풀)로 엮어맨 제주초가나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른 밭들이 그 예들이다.

4. '삼다'에 여자가 들어가는 이유

원래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던 중 많이 조난, 사망하여 여자가 수적으로 많았던 데에서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제주의 생활환경이 각박하여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서 붙여진 측면이 더 크다. 여자가 많다는 뜻의 여다는 인구통계의 비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주여성들이 근면하게 일한다는 비유라고 해야 옳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어획하는 해녀는 여성들이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섬 제주를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처럼 '삼다도'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돌, 바람, 여자인데, 이것들은 모두 제주도의 생활환경과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삼다도를 알아보는 것은 제주도의 생활환경과 기후 등을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주도를 잘 알려면 알아야 할 2가지가 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삼다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두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가뭄 -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지만, 화산섬이라는 현무암 지대는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는 양이 많아 냇가가 빠르게 마른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술한 가뭄에 시달려 제주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다.

말 - 말(馬)이 많다 보니 잣담, 발담, 산담 (제주도의 여러 가지 돌담) 등 돌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의 돌담을 이루었다. 이처럼 제주도에 많이 분포해 있었던 말도 돌, 바람, 여자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5. 삼무도란?

삼무란 제주에는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고 하여 나온 말이다. 제주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예로부터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절약·상부상조(서로서로 돕고 사는 것)를 미덕으로 삼아서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고 집에 대문도 없이 살았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는 어느 집안을 가릴 것 없이 탐라의 후예이거나 지조를 지키다가 유배되어 온 뼈대 높은 선비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서 명예심을 중히 여길 뿐 아니라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익히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이나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립·자조·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으니 제주사람들은 평소 근면·절약하고 서로 돕는 삶을 이루어 집의 대문도 필요 없었다. 집주인이 일터로 나갈 때 사람이 없다는 표시로 집 입구에 긴 나무를 걸쳐두면 되었다. 이 나무가 제주의 '정낭'이다.

삼다도, 삼무도는 이처럼 제주도의 생활환경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주도 의식주의 특징 -

1. 제주도의 지역적 특징

제주는 섬나라라는 뜻의 도이, 섭라, 탐모라, 탐라 등의 옛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육지와는 달리 의식주 생활, 신앙, 풍속 등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민속 문화가 있다.

2. 제주도 음식의 특징

우리나라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인 제주도는 농촌, 어촌, 산촌으로 구분되어 생산되는 산물이 다르다. 농산물 중 쌀이 귀하고 잡곡의 생산이 많고, 특산물인 감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 심지어 전복과 함께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품이라고 하니 얼마나 맛있는지는 잘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나는 자리돔, 옥돔, 전복, 오분자기 등과 같은 해산물, 한라산에서 나는 표고버섯, 산채, 팽 등은 제주도의 특징적인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들이다.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해서 장을 담글 필요가 없고, 담그더라도 종류가 적으며 짧은 기간 동안 먹을 적은 양을 담근다. 제주도 사람의 부지런하고 소박함이 음식에도 나타나 재료가 가진 각각의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며 음식을 많이 차리거나, 양념을 많이 넣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음식은 별로 없다. 제주도음식은 해산물, 육류로는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채소와 해초를 주로 이용하며 된장으로 소박한 맛을 낸다. 더운 지방이라 간은 대체로 짠 편이고, 양념을 적게 써서 간단하게 만들며 생선을 이용한 회, 국, 죽이 많다.

주식 : 옥돔죽, 전복죽, 돼지새끼죽, 초기 죽, 감자죽(지실), 닭죽, 김이죽, 메밀저배기, 팽 메밀만두, 감저범벅(메밀고구마범벅), 곤 떡국 등

반찬 : 툄(툄)냉국, 고사리국, 갈치호박국, 옥돔미역국, 구살국(성게국), 몸국, 해물뚝배기, 오분자기찜, 전복찜, 팽적, 자리물회, 돼지새끼회, 초기적, 상어산적, 옥돔구이, 고등어구이, 자리구이, 양애무침, 초기전(표고버섯전), 고사리전, 생미역쌈, 다시마쌈, 톳나물, 뚱돼지불고기, 구쟁이강회(소라회무침), 팽토렘(팽샤브샤브)

김치 : 굴물김치, 유채김치, 팽마농김치, 퍼대기김치, 동지김치, 해물김치

젓갈 : 게우젓, 자리젓, 김이젓, 성게젓, 소라젓, 갈치속젓

병과 : 빙떡, 상애떡, 오메기떡, 달떡, 팽엿, 닭엿

마실 것 : 밀감화채, 유자청, 보리쑥다리, 소엽차

술 : 오메기(고소리)술, 선인장술

3. 제주도 옷의 특징

제주도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 모두 작업복을 뜻감 물로 염색한 주황색 무명옷으로 입었다. 옷감을 뽀뽀하게 풀 먹일 필요도 없고, 일을 하다가 먼지가 묻으면 입은 채로 목욕을 했다. '고무'옷처럼 물도 곧 빠지고 묻은 먼지도 빠져 가장 경제적인 옷이 바로 감물 옷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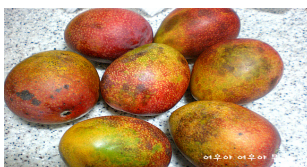
제주도의 중산간지대¹²⁾에 사는 사람들은 털옷 두루마기와 개가죽 병거지(모자)에 털가죽 행전과 가죽신을 신고서 겨울철을 지낸다. 그것은 제주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몽골의 풍습이다. 따뜻한 바닷가와 달리 한라산 부근은 한대지방과 같아 옷을 이렇게 입지 않으면 겨울철을 나기가 곤란하고 무엇보다 노숙산행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4. 제주도 집의 특징

제주도는 거센 바람과 눈, 비가 많아 집은 낮고, 집의 벽면을 돌 벽으로 쌓았으며, 지붕은 띠로 덮은 후 동아줄로 총총히 엮어매는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제주도 집의 재료는 주로 돌과, 흙, 새(역새의 일종이다) 등이다. 그리고 볏짚 대신 역새를 이용해서 엮어 지붕을 만들고, 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붕이 날리지 않게 그물모양으로 엮어놓는다.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한 곳이므로 온돌을 시설하지 않고 부뚜막 없이 솥을 따로 내걸어 음식을

12) 농촌지역 분류의 하나로 중간지역과 산간지역을 합한 지역을 말한다.

만든다.



- 새콤달콤한 제주도 과일 소개 -

용과는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닮아서 용과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피타야라고 하며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경제작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특산품으로 재배되고 있다. 칼륨 함량이 사과나 배보다 훨씬 많으며 다른 영양가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한라봉은 청견과 폰캉의 교잡종으로 한국에는 90년 전후에 도입되었다. 꽃은 다른 감귤류의 꽃보다 크고 꽃가루가 적은 편이다. 한라봉은 꼭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으며 다양하고, 크기와 모양이 고른 편은 아니다. 껍질의 감촉은 거칠며 2월에서 3월에 한라봉이 익는 시기이다.

감귤은 우리나라에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감귤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동안 중요한 진상품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온통 길 옆이든지 감귤밭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과는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등 다양한 종류가 개량되며 각각의 맛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애플망고는 사과처럼 붉은색을 띠는 망고를 말한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며 애플망고의 크기나 특징은 다양하다. 모양은 동그랗게 생긴 것, 길고 가는 것, 넓은 모양 등 다 다르며 비타민 A, C, D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과즙이 많으며 세계 5대과일 중에 하나이다.

- 제주도 방언 -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으로 워낙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제주도 방언, 사투리가 생겼다.

1) 제주 사투리의 특징

제주의 사투리는 타 지방 사투리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다. 그 이유는 제주의 사투리는 말이 짧고, 대부분이 줄임말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어미에 시가 붙고 조선시대의 아래아(ㄹ)가 발음상에 남아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과거로부터 조상들의 삶에서 묻어 온 사투리들을 생활 속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투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제주도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2) 제주도 방언으로 부른 <곰 세 마리>

곰 쉬모리가 혼집에 있어
 아방곰 어멍곰 아기곰
 아방곰은 뽕뽕해
 어멍곰은 쭈쭈해
 아기곰은 잘도 아꼬아
 으쓱 으쓱 잘 혼다.

3) 제주 사투리와 표준어 비교이해

제주 사투리	표준어
혼저옵서	어서오세요
옵데강,혼저오십서.	오셨습니까, 어서오십시오.
왕 뵡 갑서	와서 보고 가세요
혼저 혼저, 재게 재게 옵서	어서 어서, 빨리빨리 오세요
도르멍 도르멍 옵서	뛰면서 오세요
놀멍 놀멍 봅서	천천히 보세요
또시 꼭 옵서양	다시 꼭 오세요

제주 사투리	표 준 어
혼저 옵서. 제주도 사투리로 말 호난	어서 오십시오. 제주도 사투리로 말 하니까.
무신 거엔 고람 신디 몰르쿠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요?
게메 마썸, 귀 눈이 왁왁하우다.	글썸 말입니다. 귀와 눈이 캄캄합니다.
경해도 고만히 생각호멍 들으민 조금씩 알아집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며 들으면 조금씩 알 게 됩니다.
제주도 사투리 촌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우다.	제주도 사투리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펜안 하우파? 제주도엔 오난 어떻 하우파?	편안(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 오니 어떠하십니까.
촌말로 좋수다. 공기도 맑고,	정말로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산이영 바당이영 문딱 좋은게 마썸.	산이랑 바다랑 모두가 좋습니다.
서울에 갈 때랑 하영 담양 갑서.	서울에 갈 때는 많이 담아서 가십시오.
게메, 양. 경 해시민 얼마나 좋코 마썸?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기, 물허벅 정 가는 거, 비바리덜 아니파?	저기, 물허벅(바구니)지고 가는 거, 처녀들 아십니까?
맞수다. 비바리도 있고, 냉바리도 있수다.	맞습니다. 처녀도 있고, 시집 간 여자도 있습니다.
비바리덜 곱들락 호고 놀썸하우다 양 !	처녀들도 곱고 날썸 하군요 !
안아 보곡 소랑호젠.	안아보고 사랑하려고.
호꼼만 이십서게.	조금만 계십시오.
몽케지 마랑 혼저 오라게.	꾸물대지 말고 어서 오너라.
이 조끄뜨레 오라게.	여기 가까이(옆에) 오너라.
무사 조끄뜨레만 오랜 햄수파?	왜 가까이(옆에)만 오라고 하십니까?
호꼼이라도 고치만 있구정 호연.	조금이라도 같이만 잇고 싶어서.
눔덜 우습니다.	남들이 웃습니다.
어떻 호느냐? 소랑에는 부치름이 었나.	어떠하냐?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단다.

조끄뜨레 하기엔 하영명 당신.	가까이 하기엔 머나먼 당신.
흔저 왕 먹읍서.	어서 와서 드십시오.
맨도롱 하우꽈?	따뜻합니까?
뜻뜻흔 게 먹기 똑 좋았수다.	따끈따끈한 것이 먹기에 꼭 좋았습니다.
맨도롱 홀 때 호로록 들어 싸릅서.	따뜻할 때 후루룩 마셔 버리십시오.
과랑 과랑흔 벤틀	쨍쨍한 햇볕 속에
일 호젠 호난 속았수다.	일 하려고 하니 수고 했습니다.
속을 거 이수과? 호꿈, 땀은 났수다만,	수고 할 거 있습니까? 조금, 땀은 났습니다만,
안트레 들어 왕, 저녁 먹엉 갑서.	안으로 들어 오셔서, 저녁식사 하고 가십시오.

하영봅서.	많이보세요
강읍서.	갔다오세요
쉬영갑서.	쉬어서 가세요
이시냐.	있느냐
햄시냐.	하고있느냐
와시냐.	왔느냐
검절매레 안갈꺼과.	김매러 안가실겁니까.
줄쑈과.	줄습니까.
이쑈과.	있습니까.
알았수다.	알았습니다
침대방 허쿠과. 온돌방 쓰쿠과.	침대방 하겠어요? 온돌방 쓰겠어요.
여기서 서울더레 해집주양?	여기서 서울에 전화할 수 있지요?
제주엔 참 종거 만쑈다양,	제주엔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랑 전복죽 쑤줍서양.	저녁식사때는 전복죽을 쑤어주세요.
어디서 읍데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날봅서. 있쑈과.	여보세요. 계십니까?
예. 어서 읍써.	예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사쿠과.	얼마나 사겠습니까.
많이팝서 다시 오쿠다 양.	많이 파십시오, 다시 오겠습니다.
영 갑서양.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거 얼마우과.	이거 얼마입니까.
독새기, 놈뻘, 콤데사니, 아방	달걀, 무우, 마늘, 아버지
어멍, 비바리	어머니, 처녀
왕갈랑갑서.	와서 나누어 가지고 가세요.
경허지 맙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탕갑서.	차를 타고 가세요.
놀암시냐	놀고 있느냐?
감시냐	가느냐?
오라시냐	오라고 하느냐?
가시냐	갔느냐?

저디 산 것 말이우짜?	저기 서 있는 것 말입니까?
이거 얼마우짜.	이거 얼마입니까.
어디 감수짜	어디 가십니까?
넬 오쿠짜	내일 오시겠습니까?
골암수짜	말하십니까?
맛조수다게	맛있습니다.
어느제 오쿠과	언제 오시겠습니까?
놀당 갑서양	놀다가 가십시오.
도르멍 도르멍 가다	뛰면서 뛰어간다.
별이 과랑과랑 허다	햇별이 짹짹나다.
폭삭 속았수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4) 제주도방언 - 음식

걸명 : 제사 끝에 잡귀에 주기 위하여 음식을 조금씩
 떤 것
 고적 : 장례 때 일가에서 부조로 드리는 떡이나 쌀
 돌래떡 : 메밀가루나 쌀가루 등으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떡 (상가에서 만들어 역군을 대접하였다)
 둠비 : 두부
 비제기 : 비지
 누녕이 : 누룽이, 눌은 밥
 모몰죽 : 메밀죽(*모몰범벅)
 반지기 : 쌀과 잡곡으로 반반 섞은 밥
 세미떡 : 만두(속에 팔이나 무채 등을 넣어 만든 반달
 모양의 떡)
 송애기떡 : 고사떡, 말뚝 모양의 떡
 쉼다리 : 밥을 발효시켜 만든 단술의 일종
 오매기 : 술을 빚기 위하여 자조로 만든 떡
 은절미 : 메밀로 만든 네모난 떡
 조범벅 : 조로 만든 범벅(*조축·조침떡·조팝)
 고비리 : 증식(밤에 중간에 먹는 음식)
 체 : 생채소를 간 맞추어 만든 것
 양 석 : 양식
 송 키 : 채소
 식개태물 : 제사음식
 상외떡 : 밀가루로 만든 빵
 곤 떡 : 쌀떡
 친 떡 : 친떡(시루떡)
 직기떡 : 밀가루 검칠을 가루로 만든 떡

전기떡(쟁기떡) : 메밀가루로 만든 떡(빙떡)
 제 펜 : 쌀가루로 만든 찐떡
 솔 펜 : 쌀가루로 만든 반달같은 떡
 절 뱀 : 쌀가루로 만든 원형의 떡
 우 찌 : 작은 원형 떡
 중 과 : 네모난 지진떡
 약 과 : 직사각형 지진떡
 돛괴기 : 돼지고기
 감저 : 고구마
 지실 : 감자
 조배기 : 수제비
 개역 : 미숫가루
 것 : 동물먹이(예:도세기 것)
 괴기 : 고기
 바당괴기(바룻괴기) : 바닷고기(생선)
 돛괴기 : 돼지고기
 쇠괴기 : 쇠고기
 돛괴기(도세기괴기) : 돼지고기
 곤떡 : 쌀로 만든 떡
 곤밥 : 흰 쌀로 지은 밥
 독세끼 : 달걀 물괴기 : 말고기
 놔빠 : 무우
 대사니 김치 : 마늘장아찌
 마농 : 마늘, 파
 마농지 : 마늘 장아찌
 모몰 조배기 : 메밀 수제비

출래 : 반찬
춤금 : 참기름
짐치(짐끼) : 김치

춤쉴 : 찹쌀
조팝 : 좁쌀로 지은밥
독괴기 : 닭고기

- 제주도 관련 노래 -

1)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푸른 밤의 꿈 (2004)

- 원곡 :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 밤」(1988)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아파트 담벼락 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강강 발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매가 살고 있는 곳 우- 우- 우- 우-

2) 헤은이「감수광」작곡·사 : 길옥균 (1977)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떡헐랭 감수광
설릉사람 보낸시엥
가거들랑 혼조옵서예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떡헐랭 감수광
설릉사람 보낸시엥
가거들랑 혼조옵서예
어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못~잊어 그~리우~면
혼조 돌아옵~서예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떡헐랭 감수광
설릉사람 보낸시엥
가거들랑 혼조옵서예

3) 오돌또기 - 제주도 민요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너도 당실 원자머리로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1.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2.제주야 한라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읍내야 축향끝 뱃노래 듣기도 좋고좋고

3.서귀포 칠십리 파도가 언 듯 만 듯 해녀들 머리가 에루화 보일 듯 말 듯

4) 너영나영 - 제주도 민요

너영 나영 두리 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 그리워 운다.

너영 나영 두리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높은 산 상상봉, 외로운 소나무

누구를 기다리며 왜 홀로 앉았나.

너영 나영 두리 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너영 나영 두리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일락 서산에 해는 똑 떨어지고요,

놀추 동녘에 둥근달이 솟았네.

너영 나영 두리 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저 달은 둥근달 산 넘어 가고요.

이 몸은 언제나 임 만나 함께 사나

너영 나영 두리 둥실 돌고요.

낮에 낮에나~하 밤에 밤에나 상사랑이로구나.

상사랑이라구나. 상사랑이로구나.

3학년 기중, 한뫼, 종화, 지은, 록리, 헤린

- 제주의 역사 -

제주도 역사의 기원은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으며, 유물로는 탁제석기, 골각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후 청동기, 철기시대의 유물, 유적으로 고인돌, 마제석기(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석기), 토기등도 도내 전역에 분포되고 있어 제주도 역사의 기원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골각기



↑ 탁제석기

제주의 옛 명칭은 도이, 동영주, 섭라, 탐모라, 탁라 등으로 불리어 왔다. 이들 명칭 중 '동영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섬나라'라는 뜻이다. 제주도 3성 신화에 의하면 옛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고 하는 삼신인이 한라산 북쪽 모퉁이(현재의 삼성혈)이라는 땅 속에서 솟아나와 가축을 입고 사냥을 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삼신인이 귀작 세 개를 발견했다. 한 귀작을 열어보니 빛이 나면서 세 여인이 나타났다. 두 번째 귀작은 가축들이 나오고 마지막 귀작에서는 곡식들이 나왔다고 한다. 아마 이 세 여인은 인도부근이나 오키나와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들은 오곡의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 소와 말을 기르며 살기 시작했다. 그 후 '고을나'의 15대 후손인 3형제 후, 청, 계가 신라에 입조하여(벼슬에 올름) '탐라'라는 국호를 갖게 되었고, 또 이때부터 탐라는 신라를 섬기게 되었다. 제주도는 고려 때까지 만해도 외국이었다고 한다. 또 탐라국이라 불렀던 그 제주도가 삼국시대 때에는 백제와 고구려는 물론 당나라와 왜(일본)하고도 사신을 보내며 문물을 교류했을 정도로 큰 왕국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힘이 기울면서 백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이유는 바다라는 장애물이 있어 정복전쟁을 할 여건이 되지 못했고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 가기 힘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탐라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춘 것은 백제가 강성하기 전이다. 탐라국의 거의 지배자인 고을나의 후손들이 백제에 가서 신하의 지위를 받게 된다. 사실 탐라국의 지위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였다. 백제에게 속해 있지만 백제의 실질적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백제와 문화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105(숙종 10)년에는 고려의 행정구역인 탐라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왕자의 지위는 그대로 내려와 실질적인 탐라의 통치자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271년(원종 12)에 삼별초가 제주도를 차지하고 굳게 막아 지키며 몽골에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지만 1273년에 패했다. 결국 제주도는 원나라가 통치하면서 다른 곳보다도 몽골의 문화적인 영향이 컸고, 대규모 목마의 흔적으로 환경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 후 약 1세기 동안 제주도는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겪다가 1367년(공민왕 16)에 완전히 조선에 회복되고, 1416년(태종 16)에 전라도에 소속시켰다.

1914년에 시행된 군면 폐합(행정 구역의 하나인 군과 면을 폐지하고 다른 것과 합쳐진 것)때 제주군은 제주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15년에 정치지방의 행정 구역으로 도를 두는 제도를 실시하여 제주도라 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 43조가 설명을 하겠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일본 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한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의 재등장과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네이버백과) 제주도는 조선시대

때 귀향을 많이 갔던 곳이다. 그 이유는 당시 제주도에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귀향하면 혼자서 입고 먹고를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땅이 마땅치 않으니 농사도 제대로 못 하고 바람은 많이 부니 춥고 산이 별로 없으니 땀감이 부족하고 비는 엄청나게 와서 결국 제주도로 귀향 간 많은 양반들이 굶어죽거나 얼어 죽었다고 한다.

1946년에 비로소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로 승격하고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신설했다. 1955년에 제주읍을 시로 승격하고, 서귀면·대정면·한림면을 각각 읍으로 승격하고 한경면을 신설했다. 1980년에 애월면·구좌면·남원면·성산면을 읍으로 만들고, 1981년에 서귀읍과 중문면을 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했다. 1985년에 조천면이 읍이 되었다.

조선시대까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제주도는 1948년의 이른바 제주 4·3사태 등 현대사의 아픔을 겪으면서 생활 등에도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감귤 등의 상품작물의 재배지로 변하게 되었다.

- 제주도의 문화유적지 -

1) 제주의 상징 관덕정¹³⁾

제주시 삼도 1동 제주시의 중심가에 자리한 관덕정(觀德亭)은 제주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중 기단위에 세운 정면 5칸에 측면 4칸인 단층의 팔작지붕이다. 세종 40년인 1449년에 제주목사인 신숙청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은 관덕정은 성종 11년인 1480년에 중수¹⁴⁾되었다.



관덕정은 그 뒤 여러 차례 중수에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관덕정“평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닦는다”는 뜻으로 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所以觀成德也)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에서 지은 이름이다.

관덕정은 창건 이후 제주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1901년에 일어났던 신축교란 당시 지도자였던 이재수가 관덕정광장에서 효수¹⁵⁾되었다. 1947년 2월 10일에는 제주 시내의 중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양과자를 먹지 말자”고 외쳤다. 그리고 근세의 역사에서는 4·3항쟁 당시 무장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이 며칠이나 내걸려 있었던 비운의 현장이기도 하다.

2) 삼성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 외 7필지에 있는 사적지로, 탐라국 시조에 대한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 1964년 6월 2일에 ‘사적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처음 조성될 당시만 해도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가(人家)와 멀리 떨어진 신성한 곳으로서 탐라국 시조를 모셔 제사를 지내기에 적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에 광양성당, 광양초등학교, 보성시장과 주택가가 자리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3만 3833㎡에 이르며 돌담이 둘러쳐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다.

13) 관덕정은 1963년 1월21일 보물 제322호로 지정되었다.

14) 건축물 따위의 날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치다.

15) 효수: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13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삼성혈은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성씨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곳으로 지금도 품자 형태의 3개의 혈이 남아있다.

이곳은 만여평의 울창한 숲 속에 혈단을 중심으로 삼성전과 삼성문(분향소), 제향을 받드는 전사청, 서원이었던 송보당등이 있다. 매년 4월 10일과 10월 10일에 춘추대제를 후손들이 봉양하고 12월 10일에는 건시대제를 혈단에서 지내는데, 제주특별자치도제로 봉행되고 건시대제의 초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헌관과 종헌관은 지역 유지 중 추천된다.

3)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

삼별초가 최후까지 대몽항쟁을 벌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유서 깊은 유적지이다. 1997년 4월 18일 사적 제396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1,135,476㎡이다.

1270년(원종 11) 2월 고려 조정이 몽골의 침입으로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맞서김통정을 총수로 한삼별초가 고려의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 1273년 전원이 순의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이다.



해발 190~215m 지점에 있는 항파두리 토성은 1271년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이 완도에 용장성을 쌓고 주둔하며 활동하다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와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시기에 축성한 것이다. 본래 토성(높이 5m, 너비 3.4m)으로 총길이 6km에 이르는 외성을 쌓고 안에 다시 석성으로 800m의 내성을 쌓은 이중 성곽이었으며,

각종 방어시설뿐 아니라 궁궐과 관아까지 갖춘 요새였다.

1274년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 후 근대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1976년 9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듬해에 성곽 일부를 보수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성 1km를 복원하고 순의비·순의문《항몽유적기록화》(7폭) 등을 시설하여 국난극복의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제주 4.3평화공원

제주 4.3평화공원은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 인권 기념공원이다.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보상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4.3특별법 공포(2000), 공원부지 매입, 조성기본계획 연구 용역, 현상공모, 건축공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등이 이어져 2008년 3월 28일 개관하게 되었다.

5) 꽃자왈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숲 또는 지형을 일컫는다. 꽃자왈은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뒤섞여 수풀처럼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형성된 용암에 따라 크게 4지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한경-안덕 꽃자왈지대, 애월 꽃자왈지대,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구좌-성산 꽃자왈지대이다.



부가용암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류구조는 ① 흐르는 용암이 양쪽 가장자리의 차가운 대기와 접해 빠르게 굳어 만들어진 용암제방 ②용의 표면이 작은 언덕 또는 돔 형태를 이루는 튜물러스 ③ 흐르는 용암이 나무를 감싼 채 굳은 뒤 풍화로 인해 나무의 겉모습만 남아 있는 용암수형 ④마그마가 마치 종(鐘)을 얹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용암동 ⑤ 용암이 나이트 모양으로 굳은

6) 관음사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로 보아 고대에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어우러져서 제주 특유의 섬문화 해양문화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문화흐름과 형성배경으로 보아 제주도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제주도가 한반도에 귀속되기 전인 탐라국 시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관음사는 고려시대 이전, 탐라국시대의 절이라고 구전되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제주의 전설과 신화 여러편에 관음사 개남절, 괴남절, 은중절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고찰인 것만은 확실한 듯 하다.



1700년대 초에 유교국시의 방침에 따라 당시 제주 관아에서 모든 사찰을 폐쇄할 때 철거되거나 소실된 듯하다. 1900년대 초에 비구니 안봉려관스님에 의하여 현재 위치에 관음사를 중창함으로써 제주불교 부흥의 근본도량이 되었다.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관음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 성지가 되고 문화관광지가 될 것이다.

7) 제주목 관아



제주목 관아는 관덕정(보물제322호)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탐라국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제주목 관아지를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 조사한 결과 문헌상에 나타나는 중심건물인 홍화각(弘化閣), 연희각(延義閣), 우연당(友蓮堂), 굴림당(橘林堂), 영주협당(瀛洲協堂) 등 30여 채의 건물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지난 1993. 3. 30일과 2003. 7. 6일 2회에 걸쳐 주변토지 45필지 22,391평방미터(6,773평)가 국가 사적지 제380호로

지정되었다.

장장 10여 년 간의 발굴조사 끝인 지난 2002년 12월 1차 복원공사가 완료되어 홍화각, 연희각, 외대문 등 8동의 건물이 복원되어 전국에서 복원된 유일한 조선시대 관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제주 4.3 사건 -

4.3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군 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



제주도에서 철수하는 일본군

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민원이 그치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되어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데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쯤에 미군의 제주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군 6만여 명이 있었던 전략기지로 변했고, 종전 직후에는 일본군 철수와 외지에 나가있던 제주인 6만여 명의 귀환으로 급격한 인구변동도 있었다. 광복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귀환인구의 실직 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수백 명의 희생, 극심한 흉년 등의 악재가 겹쳤고,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터져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3·1절 발포사건은 경찰이 시위군 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희생자 대부분이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 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 등이 대거 제주에 내려가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전개했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사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다른 하나는 당면한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서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사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초기에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 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측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쪽에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견장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중산간 지대로 대피한 사람들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산간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변 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 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실로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개 과정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풂, 테러,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까지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 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 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의 가해별 통계는 토벌대 78.1%(10,955명), 무장대 12.6%(1,764명), 공란 9%(1,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을 제외해서 토벌대와 무장대와의 비율로만 산출하면 86.1%와 13.9%로 대비된다. 이 통계는 토벌대에 의해 80% 이상이 사망했다는 미군 보고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국가유공자는 모두 639명이다.

서청 단원들은 '4·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작전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였다. 강경 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4·3사건으로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는데, 대부분 이때 방화되었다. 결국 이 강경 진압작전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 명가량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 무렵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피해마을은 세화, 성읍, 남원으로 주민 30~50명씩 희생되었다.

9연대에 이어 제주에 들어온 2연대도 공개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즉결처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주민 집단총살사건인 '북촌사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마을 주민 400명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개소에 이른다.

1948년 12월(871명)과 1949년 6월(1,659명) 등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각각적인 조사결과,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를 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그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948년 11월 17일 선포돼 그 해 12월 31일 해제된 '4·3 계엄령'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측과 일제 계엄령이 계속 효력을 갖고 있기에 적법하다는 측의 다툼이 있다. 여기서는 계엄의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계엄령 집행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계엄령 하에서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이 빈번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군 지휘관들조차 계엄령을 잘 알지 못했는데, 심지어 계엄령 해제 후인 1949년 제주작전에 참여한 2연대 대대장이나 독립대대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 작전을 펴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

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철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

연좌제에 의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제주공동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4·3사건의 상흔들이 그 유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된 것이었다.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연좌제로 인하여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1981년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유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48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은 전시(戰時)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고의적인 살인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신체 상해 △군사적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대량 파괴와 약탈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판상의 보장을 부여하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판결 및 형의 집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48년 제주 섬에서는 이런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기도 했다.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 지였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 점이 4·3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조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사건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는 이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피해실태

4·3항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는 물론 가옥손실 등의 물적 피해와 공동체의 파괴, 연좌제 등 유형·무형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 피해실태를 계량화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인명피해의 경우 아직도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존재하며, 신고할 유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족이 있으며, 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당한 어린이가 많은 점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피해 숫자를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힘든 실

정이다. 물적 피해 또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초토화되어 가옥이 소실됐고, 이들 마을의 가축 대부분이 분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연좌제라는 족쇄로 형언키 어려운 피해를 주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도 그에 못지않게 지속되었다. 또 간과하지 못할 피해로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던 삶의 공동체가 뿌리 채 파괴되는 등 무형의 피해도 유형을 달리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진상규명운동

제주사람들에게 4·3은 되살리고 싶지 않은 처절한 비극적 역사다. 역사적으로 제주사람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착취·수탈구조와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역사를 이어왔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4·3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4·3 이후 6·25를 거치면서 권위주의적 반공체제가 강화되면서 제주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해왔다. 4·3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 된 것이다. 이미 4·3 당시 체득한 생존의 제일조건이기도 한 굴욕과 순응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끊임없이 연좌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대놓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을 40여 년 이어 온 것이다.

그 단적인 예를 북촌 리의 세칭 '아이고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북촌 리는 1949년 1월 17일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토벌대에 의해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국민학교에 집결한 남녀노소 주민 400여 명을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입었다. 5년 후인 1954년 1월 23일,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마을 청년의 넋을 달래는 전통풍습인 소위 '꽃놀림'을 하다 망자가 재학했던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꽃놀림' 행렬이 도착했다.



그 곳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다가, 북촌리 주민들은 5년 전 같은 장소에서 무참히 죽어간 부모 형제와 일가친척 생각에 한 두 사람 눈물을 보이며 울기 시작했다. 이내 국민학교 운동장은 '아이고' 소리 가득한 눈물바다가 되었고, 초와 향을 사르며 북촌리 대학살 사건 때 비참히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연발생적인 상황이 당국에 발각되어 주민들이 커다란 곤욕을 치렀다. 눈물마저 죄가 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4·3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다. 그만큼 4·3으로 인한 상처가 깊고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숭한 좌절을 겪었지만 신음처럼 4·3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제주 4·3에 대한 연구는 기록과 증언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4·3 연구에는 외적 제약조건이 강하

게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의 격변 과정은 그대로 4·3 연구에도 투영되었다. 4·3 관련 기록은 대부분 미공개된 상태이고 증언자들은 시대적 분위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어 왔다. 따라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4·3의 진실을 밝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조건에서도 각자가 처한 현재적 위치에서 4·3에 대한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토벌에 참여하였던 군인·토벌대, 남로당원 및 무장대원, 일본으로 도피한 제주출신 교포, 학살당한 희생자의 유족, 미국무성 관리, 문학·예술인, 정치학·역사학·인류학자, 학생·시민운동가들의 입을 통하여 4·3 담론은 형성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 과정, 4·19 직후 민주화의 분위기, 5·16 이후 30년 가까운 폭압적인 군사독재체제, 80년대 후반 이후의 사회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4·3의 진실은 깊은 잠을 자기도 하고 수면 위로 부상하며 요동치기도 하였다.

1960년 4·19혁명은 한국전쟁과 이승만 반공독재체제 하에서 도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졌던 공포감과 불만을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19가 일어나자 10여 년간 입을 굳게 다물었던 4·3 피해유족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1960년 5월 23일 국회 차원에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조사단이 구성되자,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제주 4·3의 진상도 조사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제주대학 학생 7인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 자체 조사에 나섰고, 모슬포 지역 주민들은 진상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국회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주도민의 요구를 수렴, 경남지역 조사반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 4·3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6월 6일 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렸던 국회조사단의 증언 청취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을 품어온 학살양민 유족들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한결 같이 학살 당시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 시기 4·3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주신보의 학살진상 신고 접수 결과였다. 6월 10일 까지 연기하여 접수 마감된 학살 건수는 총 1,259통, 인명 피해는 총 1,457명에 달하였다. 물론 이 숫자는 1990년대 제주도의회 4·3특위에서 조사한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열혈에 불과한 기간에 이만큼 신고 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여기에는 4·3 민간인학살의 대표적 사례인 북촌·의귀·토산·예비검속 학살사건 등이 수록되어있어, 이미 4·3의 진실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었다.

국회조사단의 제주도 조사 방문은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한껏 기대감을 부풀게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의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들이 상경한 뒤 국회 차원에서 4·3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국회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하여 재경 제주출신 학생들은 6월 21일 국회 앞으로 몰려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를 처단하라는 빠라를 살포하면서 시위하였다. 4·19 직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 남제주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김성숙은 1961년 「제주도 양민학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와 위령탑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못하였다.

1960년에야 열린 4·3 해결의 물꼬는 다음해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막혀버렸다. 이로부터 20여 년간 군부독재의 억압체제 속에서 4·3 논의는 또 금기시 되었다.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좌제의 억압기제는 4·3에 대한 발설조차 차단했다. 도민의 입을 통한 4·3 증언은 기대할 수 없었고, 4·3 담론은 국가권력이 독점하였다.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나 1990년에 나온 「제주경찰사」 등이 공권력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들 책은 공통적으로 4·3을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1963년, 국내에서의 4·3논의가 금기시 된 가운데 제주출신 재일동포 김봉현·김민주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를 일본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주로 4·3 '무장투쟁'에 참여하였던 지도부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일본에 숨어 들어간 저자의 기억과 무장투쟁론자들의 증언이 이러한 서술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전체 제주도민의 기억이나 정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편향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 전개과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4·3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민학살의 지역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후 현장 증언 조사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소설가 현기영이 1979년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하여 그 진상과 상처의 일부를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롯되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 제주 4·3은 사회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고조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4·3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갔다. 4·3은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부각되었고, 문화예술인은 소설과 시, 마당극, 노래, 그림을 대거 쏟아내면서 4·3을 대중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89년 제주지역의 재야운동단체들은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 직후인 5월 10일 '제주4·3연구소'가 발족됐다. 제주4·3연구소는 창립 이후 증언집 「이제사 말함수다 1, 2」(1989, 1990), 증언채록집 「4·3장정」 6권, 무크지 「제주항쟁」을 발간하여 사실 증언의 축적과 학술적 논의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신문은 1989년 4월 3일을 맞아 「4·3의 증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 해 말 제주신문 사태로 이 연재는 중단되었다가, 1990년 제민일보 탄생과 동시에 「4·3은 말한다」로 이어지면서 4·3 관련 증언을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이 연재는 김익렬 경비대 9연대장의 실록유고집, 오라리 조작사건의 전모 등을 밝혀냄으로써 왜곡되어 왔던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소설가 오성찬씨의 증언채록집 「한라의 통곡소리」는 민중 수난의 여러 사례를 체계화시킴으로써 대학살의 일면을 증언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렇듯 80년대 후반 사회 상황의 변화는 굳게 닫혔던 4·3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로 4·19 이후 30여 년만의 일이었다. 당시의 증언들은 주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를 꺼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직도 냉전체제의 중압감이 증언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주요 학살사와 관련된 증언들은 대부분 이때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상 규명 목소리나 증언이 단편적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용공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씌우며 그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했다.

90년대 들어 이념의 장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MBC는 1992년 대하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방영하여 4·3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룸으로써 '방송매체에 의한 4·3 증언'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3 피해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읍면별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로 「4·3 피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었다(1995. 4).

이 두 가지 사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와 도민을 대표하는 공적인 기구가 4·3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4·3의 공공화·대중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문민정부 역시 “공인된 단체에서 진상 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협조를 하겠다”(1993. 5. 8)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하였다. 이제 상호 학살을 행하였던 자들이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였던 자들의 직접 증언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해졌다.

이러한 증언의 축적에 따라 90년대 중반에 와서 4·3의 진상 규명은 민간인학살에 초점이 두어져갔다. 이 시기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와해와 제주도 내에서의 합동위령제의 개최 등 화합 분위기는 4·3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였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꾸준한 취재 활동과 4·3연구소, 도의회 특별조사반의 마을별 조사 활동을 통하여 학살의 실상과 피해실태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또한 1998년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4·3양민학살의 실상이 국제적 연대의식 속에서 조명되었다.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되자, 도지사가 4·3특별법의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1997년 서울에서는 ‘4·3범국민위원회’가, 제주에서는 ‘4·3학술문화사업회’가 구성되어 4·3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갔다. 1998년 4·3 발발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학술문화 및 위령·기념행사가 펼쳐져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1999년은 지난 천년의 마지막 해라는 상징적 의미, 15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정치적 의미가 중첩된 해였다. 따라서 그 해 안에 4·3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분출되었다. 제주에서는 ‘4·3도민연대’가 결성되어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4·3범국민위원회’가 제주의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 결과, 1999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이 고대하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2003년 10월 15일 ‘4·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 강정마을 -

강정마을은 2014년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될 제주도 남쪽의 서귀포시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을이다. 해군기지는 중덕 해안에 9770억 원이 투입돼 2014년 완공(공사 지연으로 2015년 예정)될 예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된다. 이 해군기지는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 2척 동시 계류가 가능한 수용 능력을 갖춘 예정이다.

2007년 6월 확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4년 2개월째 표류해 왔다. 시민단체의 원정 농성이 본격화한 2011년 5월 이후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가 102일 만인 9월 2일 공권력이 투입돼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앞서 2011년 8월 29일 법원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에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12년 7월 5일 대법원은 강정마을 주민이 낸 사업승인 무효소송에 대해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며

1·2심에서 국방부의 일부 패소 부분까지 깨고 원고 패소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의 5년 가까이 끈 법적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가. 강정마을의 환경

강정마을 구럼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지형으로 바위에 폭만 12km의 달하는 한 덩어리의 바위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이다.



특히 바위에서 용수천이 솟아나는 국내 유일한 바위로 습지지대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무척 높은 곳으로 2004년 구럼비와 일대 해안은 절대 보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럼비는 가장 풍광 좋은 코스로 이름난 제주 올레 7코스에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구럼비는 이지역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남쪽해안에 195km어 걸쳐 광대하게 펼쳐있습니다.

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시 생기는 장점

a. 이웃나라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해군력

한국해군은 아직 연안해군 수준이고 주력함정이 경비함 80척에 비해 주변 국가는 수십기의 구축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작은 해군력으로 어떻게 맞서 싸울지가 문제이다. 해군 기지가 건설 될 시에 남해 해역 효율적 방어로 해상 분쟁 시 요충지가 될 수 도 있다.

b. 국가의 최전선에는 안보를 위해 국방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주의 경우에도 최전방이라는 이유로 육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지역 주민들도 양보를 한만큼 강정마을도 국가의 안보가 필요하다.

c. 석유, 수출입 관련 해상 분쟁 시 최적의 요충지

우리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다.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남지나해에서 제주도 해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뤄진다.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과 분쟁이 일어날 시에 우리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군기지를 지을 수 있는 공간 중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즉 빠른 시간내에 대처가 가능하단 거다. 우리나라 해군력이 중국, 일본에 비해 열세인 것은 맞지만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속하게 분쟁현장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시 생기는 단점

a. 긴장과 대결만을 불러올 해군 기지

-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군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안보 실현'은커녕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 혹은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운 한국해군의 지역적 역할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 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불가능, 외교적 문제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해적이 발생하여도 일일이 이를 해군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외교적 문제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군사시설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의 기동전단이 사용하는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 환경 파괴

-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곳이다. 붉은말 말뚝 게가 서식하고,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구름비 바위가 있고 우리가 꼭 보존해야 할 자연적 위치라는 것이다.
-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 보존 구역'
- 강정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 종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 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c. 관광지로서의 역할 상실

- 평화적 의미가 상실하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말로 속이고 있고 군이 들어와서 군 가족 등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강정마을은 자연의 상징성을 잃어버렸다.

d. 잘못된 절차

- 제대로 된 환경평가, 주민설명회가 없었고, 결정이 이뤄졌을 때도 주민 1900명중 80명만 모였다. 협의 되지 않은 정책진행으로 공동체? 붕괴를 가져왔다.

e.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의 전초기지로 변질

- 남한보호라는 취지지만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모두 견제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f. 제주의 평화적 상징 의미를 상실

-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곳에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 오름 -

오름이란 기생화산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생화산이란, 큰 화산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한라산에 약 370여개의 기생화산이 있다. 작은 산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 '오름'으로 불리며, '악', '봉'으로도 불린다.

1) 가장 높은 오름 - 흙붉은오름 (1380.7m)

흙붉은오름은 토적악(土赤岳)이라고도 한다. 명칭은 오름을 구성하는 흙이 매우 붉은색을 띠는 데서 유래했다. 높이 1,380.7m, 둘레 3,403m, 총면적 72만 1090㎡ 규모의 기생 화산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다. 동쪽으로 입구가 벌어진 말굽 형 분화구가 있으며, 분화구 안쪽 깊은 지점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다. 특히 이 샘은 기생 화산의 분화구 안에 있는 샘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분화구 아래쪽으로는 구상나무를 비롯한 여러 고산식물이 살고 있다.

2) 가장 낮은 오름- 가메창오름(6m)

가메창은 가메(가마)의 창(밑바닥)과 비슷하다 하여 붙은 오름의 이름이다. 높이는 6m로 제주도의 368개 오름 중에서 가장 비고가 낮은 오름이다. 원형 굴부리(굴부리: 분화구를 뜻하는 제주도 말이다)가 있는데 둘레는 약 300m정도 되며 깊이가 16m나 되어 높이보다도 10m가 더 깊게 파였다. 분화구 안쪽은 잡초로 뒤엉켜 있어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오름 중 가장 낮은 오름이라 한번 들려볼만 하다.

3) 성산일출봉

높이 182m. 제주특별자치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다. 중기 홍적세 때 분출된 화산인 성산봉은 커다란 사발모양의 평평한 분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다. 3면이 깎아지른 듯한 해식애를 이루며, 분화구 위는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성산이라 하며, 해돋이가 유명하여 일출봉이라고 한다.

129,774㎡의 넓은 분화구 안에는 풀밭이 펼쳐져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 이 풀밭은 예로부터 성산리 주민들의 연료 및 초가지붕을 이는 띠의 채초지와 방목지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없고 억새띠 등의 식물 군락을 이루고 있다.

본래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너비 500m 정도의 사주가 1.5km에 걸쳐 발달하여 일출봉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어 놓았다. 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25분 걸리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광경은 예로부터 영주10경의 하나로 꼽혀왔다. 197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보호하다가 일출봉을 포함한 1km 이내의 해역을 포함한 구역을 2000년 7월 18일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4) 절물오름

절물오름이란 이름은 이 절물에 연유하며 나온 이름이고 한자로는 사악이라고 지었다. 그 절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고 언제 없어 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이 오름에 다른 이름으로는 대나 오름, 대나오름이라고도 불린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단하봉, 단라봉 등의 옛 표기를 보면 절물 오름의 옛 명칭이었던 것 같다.

높이는 696.9m, 비고 147m, 둘레는 2,459m, 면적은 397,123㎡, 폭은 539m이며, 모양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정상부에 원형의 화구가 있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정상의 전망대에서는 동쪽의 일출봉부터 제주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한라산이 가깝게 와 닿는다.

절물 오름은 제주시 절물 자연 휴양림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오름으로 오름 북쪽 기슭을 끼고 자연휴양림을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절물 약수터로 많이 유명하다. 절물 오름은 두 봉오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봉오리를 큰 대나, 작은 봉오리를 대나라고 부른다.

5) 한대 오름

한대악이라고도 한다. 명칭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높이 921.4m, 둘레 1526m, 총면적 13만 2263㎡ 규모의 기생 화산이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가로로 길게 놓여 있다. 오름 전체가 해송과 삼나무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잡목이 우거진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군데군데 진달래와 청미래덩굴이 자생한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름으로,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의 해발 1100m 고지를 지나는 1100도로에서 이 오름까지 이르는 숲길은 제주도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힌다. 동쪽 기슭 주변에는 넓은 습지대가 있다.

6) 물영아리 오름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화산체, 즉 오름의 90% 이상은 스킨리아¹⁶⁾가 쌓인 분석구이다. 분석구의 형태는 각기 다른데, 화구의 크기, 불기둥의 높이, 분출된 마그마의 양, 당시 바람의 방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스킨리아를 설명할 때면, 팝콘을 예로 든다.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가 갑자기 팽창하는 것이나 압력이 줄어든 마그마 방울이 팽창하면서 고화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스킨리아는 팝콘처럼 흩어지지 않고 원추형을 이루는데, 이는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뜨거운 스킨리아가 서로 엉겨 붙기 때문이다.

분석구가 만들어진 후 화구를 따라 용암이 올라온다. 화구 밖으로 용암이 넘쳐흐르면, 결합력이 약한 스킨리아는 용암의 무게를 못 이겨 한쪽 벽이 쉽게 허물어져 말굽형 분석구가 만들어진다. 한편 용암이 화구 입구까지 올라와 굳을 경우 원추형 화산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고화된 용암의 불투수성 때문에 비가 오면 화구 바닥이 물에 잠긴다. 제주 분석구의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는 꽤 많다. 특히 이곳 물영아리 오름에는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 세계적으로는 1,648번째 람사조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16) 화산 분출물 중에서 공기구멍이 많고 검정, 갈색, 빨강 등의 암석이며 지름이 4mm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7) 거문오름

거문오름(拒文岳[1])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계를 이루는 오름이다. 산의 꼭대기에는 물이 언제나 고여 있다. 동쪽에는 상록수림이 자라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낙엽수림이 자란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포함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8) 사라오름

사라오름(1324m)은 백록담 아래에 자리했다. 제주도 내 386개의 오름 중에서 가장 높은 오름이다. 이 오름은 정상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다. '작은 백록담'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비밀스러운 호수가 분화구 속에 숨겨져 있다. 사라오름이 일반에 개방된 것은 2010년 가을.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오름 40개 가운데 처음으로 개방된 것이다.

9) 새별오름



초저녁에 외롭게 떠 있는 셋별 같다'해서 '새별'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에서 서부산업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허허 벌판에 동그랗게 솟아 있는 519.3m의 새별오름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서 보기에는 동그랗지만 실제로 오름을 오르면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옆의 이달봉에서 바라보면 새별오름의 형세가 제대로 드러난다. 새별이라는 이름과 딱 들어맞게 실제로 새별오름과 함께 다섯 개의 동그런 봉우리들이 별 모양을 이루고 있다. 오르는 길의 경사도가 만만치 않지만 힘겹게 정상에 오르면 감탄사가 절로 터진다.

동쪽으로는 멀리 한라산이 영험한 자태로 서 있고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는 과거 몽골군과 최영 장군이 격전을 치렀던 곳으로 알려진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서남쪽으로는 초원 너머로 짙푸른 바다를 사이에 둔 비양도가 바라다 보이는데 제주의 서남쪽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해질 무렵 오르면 감동적인 일몰도 경험할 수 있다.

오름 정상에는 '새별오름묘'라 하여 공동묘지가 있는데 전형적인 제주의 묘지형태로 무덤 주위에 사각으로 현무암 돌담을 두르고 죽은 자의 영혼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두었다. 가을이면 오름 전체가 억새로 은빛 바다를 이루며 음력 정월대보름 전날인 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들불을 놓아 오름 전체를 태우는 들불축제가 열리는데 달집을 만들어 태우는 여느 대보름 행사와 달리 오름 전체가 타올라 마치 화산이 폭발 하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낸다.

- 꽃자왈과 만장굴 -

1) 꽃자왈

꽃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숲이다. 또한 수풀처럼 어수선하게 된 곳을 칭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꽃자왈은 매우 커서 총 4구역을 나눠 있는데 한경과 안덕이라는 지역, 애월, 조천-함덕, 구좌-성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꽃자왈은 수풀이 우거져 원시림지대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생산하기에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고 불린다.

현재는 제주꽃자왈 도립공원을 2단계 설계를 계획 중이다. 현재 있는 도립공원은 보행로가 잘 이어져 있고 숲을 잘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한다.



2) 만장굴 - 성인은 2000원의 입장료와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은 1000원.

천연기념물 제 98호로 지정된 만장굴은 천연동굴로 종유석과 석주들이 장관을 이루어 면적은 굉장히 크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만쟁이굴'이라고 칭해 알려졌다. 여름에 가도 동굴안에 들어가면 서늘하다. 만장굴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굴이라고 하고 그 길이는 세계 최장이라고

한다.

- 제주도 부속도서 -

제주의 부속섬들이 90개가 있다고 한다. 그중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82개였다. 2010년 3월까지의 무인도가 55개였으나 위성사진 등으로 27개를 더 찾았다고 한다. 유인도는 - 우도, 마라도, 기파도, 등이 있고, 무인도 - 거북이도, 문주란섬, 달서도, 차귀도, 비양도, 지귀도, 문섬, 범섬, 이도, 광도, 납덕서, 흑검도, 중도, 장수도, 소머리섬, 염섬, 상섬, 큰돌섬, 구명섬, 청도, 수령도, 외간도, 수영도, 서건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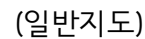
- 마라도 -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동경 126° 북위 33°에 위치하며, 제주섬을 뒤로하고 동쪽으로는 대한해협 건너 대마도와 日本 열도의 구나카이현과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南중국 상하이와 마주하는 북태평양에 홀로 떠 있는 섬이다. 북쪽으로는(모슬포항 기점 11km·가파도 기점 5.5km)이며 그 너머로 송악산과 산방산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 423호 마라도 면적은 약 10만평이며, 동·서 0.5km 남·북 1.3km 해발 39m 해안선 길이 4.2km의 작은 섬이다. 섬은 해풍에 자라는 천연잔디가 초원을 이루고 있으며, 40가구 90여명(2007, 1기준) 주민이 살고 있고, 1일 평균 700여명 정도의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마라도는 해풍으



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며, 용천수가 나지 않아 봉천수(빛물·여과 후) 지하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가정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마라도는 바다 속에서 독립적으로 화산이 분화하여 이루어진 섬으로 추정되나 분화구는 볼 수 없다. 북쪽에서 본 마라도는 등대가 있는 부분이 높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중심부에는 작은 구릉이 있고 섬 전체가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초원을 이루고 있다. 섬의 돌출부를 제외한 전 해안은 새까만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은 대부분 해식애를 이루고 있는데, 북서해안과 동해안 및 남해안은 높이 20m의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파도 침식에 의하여 생긴 해식동굴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3) 마라도 역사

한척의 항공모함을 연상하게 하는 마라도는 개척이전에는 금섬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기면서도 접근을 꺼렸던 섬이었다. 옛날에는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고 해안에는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주변지역 파도가 높고 기후변화가 심하여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간혹 날씨가 풀릴 때에는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섬에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해산물도 채취 했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 고종20년(1883) 모슬포에서 김씨·라씨·한씨·이씨 등이 입도시에는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하였으나, 이 주민들이 농경에 필요한 경작지를 마련하고자 숲을 태워 없애고 탄 자리를 일구어 농지로 바꾸어 나갔으며, 고향을 떠난 이주민중 한사람이 환한 달밤에 통소를 부는데, 많은 뱀들이 몰려 왔다고 한다. 이에 놀란 주민은 뱀들을 제거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질렀는데, 타기 시작한 나무는 석 달 열흘이 지나서야 불길이 멎었고, 뱀들은 꼬리를 물고 바다 건너 제주의 동쪽지방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라도에는 뱀과 개구리가 없다. 또한 마라도 해안선은 기암절벽을 이루어 절벽 밑은 해식동굴이 형성돼 있고 섬 전체가 현무암석 덩어리이며, 이러한 암석은 해저에도 깔려 있어서 이 지역의 해안에는 패류·해조류·연체류 등 해산물이 풍부하여 전복·소라·해삼·성게·미역·톳 등이 적지이고 예로부터 여름철 뱀어돔과 자리돔은 유명하다.

4) 마라도 대한민국 최남단비

대한민국 가장 남쪽 땅에 세운 비석이다. 이곳 남쪽으로는 광활한 태평양 바다이다. 마라도 등대와 마라도 성당옆을 지나치면 대한민국최남단 새겨진 표지석이 보인다. 마라도에 온 관광객은 거의 여김없이 이 표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마라도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도 대한민국 최남단 국토라는 상징성에 있다고하였다

5) 형성 및 변천

마라도는 두께가 얇은 복합용암류(compound flow)로 흘러 겹겹이 쌓인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은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파호이호이 용암은 굳은 표면을 부풀리면서 흐르게 되는데, 이 결과 용암이 만든 겹모양이 고래등 모양이다. 선착장 부근에서 용암류의 단면을 볼 수 있고, 이곳에서 한 용암류의 윗부분이 고래등어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곳에 따라서는 용암류 내부가 비어 있는 용암관을 관찰할 수 있다.

원래는 대정읍 가파리에 속했으나 1982년 4월 1일마라리로 분리되었다.

본래 무인도로 울창한 원시림이 덮여 있는 무인도였으나, 1883년(고종 20년)에 모슬포에 거주하던 김(金)나(羅)한(韓)씨 등 영세 농어민 4, 5세대가 당시 제주목사 심현택으로부터 개간 허가를 얻어 화전을 시작하고서부터 삼림지대는 전부 불타 버렸다 한다.

6) 바람부는 섬 마라도

마라도 역사 마라도는 바람의 왕국이다.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바람을 부르고 맞고 보낸다. 하늬바람 섯바람 마파람 갈바람 등 온갖 바람들이 마라도를 찾는다. 마라도는 남지나 해로 부터 흘러 들어온 난류와 해양성 기후의 특성으로 높은 기온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 안개가 자주 낀다.

7) 마라도 해돋이

마라도 해돋이와 해지기는 지나온 삶의 무게를 되돌아보게 한다. 맑은 날 해돋이와 해지기가 시작될 무렵 마라도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아스라한 주황빛이 여느 노을처럼 사물을 물들이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다 빨아들여 빛살 속에 등등 띄워 놓는다. 분명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도 꿈을 꾸는 듯 하다. 위로는 온통 하늘만 쏟아지고 옆으로는 온통 바다만 겹겹이 쌓여 흐른다. 눈을 감아도 하늘과 바다가 절로 느껴져 섬은 어디론가 떠가는 것 같다.

8) 마라도 등대

국토 최남단에 있는 등대로써 세계 해도상에 표지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한 등대는 19153 아세리친 가스를 이용한 무인등대로 불 밝히기 시작해서 19555 유인등대가 되었다. 등대는 일본군에 의해 축조 되었으며 그동안 태풍피해를 입어 19873 새로 건설했다. 해방 이후 군인집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8.4.3 서북청년단들에 의해 파괴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마라도·주민 라봉필이 그들을 설득시켜 화를 면했다고 한다.

9) 마라도 분교

마라분교 설립 42년 젊은 사람들은 마라도를 떠나고 있고, 그나마 있는 외지인들 중에서도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은 공부는 섬 밖에서 시키고 있다. 이곳의 수업을 본 여행객이라면 아이 셋에 선생님 한분이니 가정교사나 다름없다고 한다. 학원도 필요 없이 선생님이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가르치니 학습효과가 뛰어나리라는 부러움 섞인 시선이다. 하지만 마라분교 선생님은 오히려 아이들은 친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섬을 둘러싼 바다와 땅 전체가 전부 학습장이고 운동장인 셈이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짜장면 시키신 분~



마라도에 도착하면 '짜장면 시키신분'이 메아리치기 시작한다. 여행객 발 길이 잦아지면서 섬 곳곳에서 주문전화기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모·이동통신회사 CF·촬영이 계기가 되면서 마라도 해물짜장면이 해학적인 이미지에 힘입어 인기가 치솟자 4년前 또 다른 짜장면 집이 들어섰다. 업소는 달랑 두 곳인데~원조 열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설립목적

제주도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자 함.

시설현황

- ▶ 시설명 : 제주장애인요양원 ▶ 설립일자 : 2002년 3월 14일
- ▶ 대표자 : 정석왕
- ▶ 소재지 : 제주시 영평동 2166번지
- ▶ 건축개요
 - 용도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 부지면적 : 961.39㎡(지상3층, 지하1층)

이용인 현황

구분			남				여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발달장애
연령	총계	40	6	5	7	1	5	8	7	1
아동	수급자	11	2	-	1	1	-	3	3	1
	실비자	6	-	1	2	-	1	2	-	-
성인	수급자	17	-	5	4	-	2	3	3	-
	실비자	6	3	-	-	-	2	-	1	-

주요사업내용



1)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상자립, 금전관리, 취미활동, 사회적응 훈련 등으로 자신의 일상의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자립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재활훈련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감각 신체체육활동 및 정서 활동을 통해 유대관계 형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흥미 유발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재활 및 신체 재활훈련으로 잔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집중케어지원 프로그램

활동 능력 및 반응 능력이 적은 가족을 대상으로 잔존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예방하기 위해 감각 기능 향상, 마사지, 정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의료지원 서비스

다양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에게 진단 및 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을 개발하여 장애상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물리치료 서비스

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하여 중증장애를 최소화시키고, 경증장애를 정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신체기능을 자의적으로 조절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영양관리 서비스

신체특장이나 기호식품에 따라 영양사가 식단에 반영하여 급식이 실시되며,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함께 하고 있어 편식을 방지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교육연구 서비스

가족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실습생 지도, 사례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자원봉사안내

우리 요양원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정적인 영역에서의 서비스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9) 노력봉사

목욕보조, 생활관 및 원외 청소, 점심/저녁식사보조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실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0) 전문자원봉사

치과, 한방, 이마용, 일반내과/외과, 미술치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 전문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

11) 차량운전 자원봉사

재활치료 및 외부활동을 위해 차량운행(원차량 또는 개인차량)을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

12) 개인결연 및 가족자원봉사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장애인들에게 말벗 및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

13) 교육봉사

학습 지도 및 컴퓨터 교육 등의 1:1 학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루일정

- 06:30 아침/ 점심식사 조 기상
- 07:00 전체기상
- 07:30~ 아침식사 및 정리
- 08:10 아침열기, 짐정리 및 청소
- 09:00 오전활동
- 12:00 점심식사
- 01:00 오후활동
- 05:00 숙소 도착 / 저녁식사조 준비
- 06:30 저녁식사
- 07:30 청소
- 08:00 평가반성 모임시간, 일지쓰기, 저녁활동, 간식먹기
- 10:00 취침

생활규칙

- . '움직이는학교' 도 학교교육과정이니 만큼 학교생활에 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 . 기상당번은 효연, 형규
- . 청소당번은 다연, 시정
- . 용돈관련 : 3만원 한도에서 사용한다. 왕복개인차비는 별도. 관리 철저히 할것.
- . mp3, 디카, 사진기는 소지 가능하나, 무게, 관리 등은 본인 책임. 단체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 할것
- . 핸드폰, 오락기 등은 소지 금지
- . 스마트기기 : 공공장소, 수업, 기타 모임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무선인터넷, 게임, TV등의 대중매체 시청 등의 기능을 사용 하면 핸드폰과 동일 규칙 적용
- . 식당털이 금지
- . 드라이기는 제한적으로 사용 할것
- . 가위바위보 금지
- . 샤워는 신세지는 곳이 많으니 눈치껏하도록 하고 친환경용품 사용할 것
- . 시간을 잘 지키자
- . 일정을 잘 지키자
- . 하루 일지 꼬박꼬박 쓰기
- . 필독서 읽고 소감문 쓰기
- . 텔레비전, 인터넷 사용 금지
- . 매점 금지
- . 일회용품, 인스턴트 식품 사용 금지

■ 취지 : 학생들의 흡연은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흡연 자체가 가지는 청소년기의 역기능으로 인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소수지만 중독성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흡연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흡연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건강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금연에 성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운영규정은 흡연에 한하도록 한다.)

1. 건강위원회 운영방안

- 1) 흡연학생은 가입절차에 따라 건강위원회에 등록한다.
- 2) 금연을 위하여 노력하고 흡연의 확산, 냄새, 쓰레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건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 4) 매 학기 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건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건강위원회는 운영위원과 회원으로 나뉘어진다.

1) 운영위원

- 학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학부모님의 참여도 가능하다.
- 매년 새롭게 구성하되 학생은 2~3명, 교사는 1~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은 해당 년에 따라 변동가능)
- 건강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 회원

- 흡연 사실을 고백한 학생

3) 활동

- 건강위원회 규칙이 바뀌면 그 내용을 건강위원회에서 합의한 후 가족회의와 학부모회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한다.
- 한 주간 흡연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논의하고, 금연노력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본다.
- 모임은 1주일에 1회 이상 갖는다.
- 금연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건강 프로젝트를 한다.
-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단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 금연노력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도움과 진단을 받는다.
- 흡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의 요인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실과 긴밀한 협조 하에 흡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하고 흡연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3. 가입절차

흡연을 하는 학생 중 스스로 금연의지를 갖거나, 타인에 의해 적발되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자동으로 건강위원회에 가입되며 자신의 흡연현황을 알리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4. 건강위원회 규칙 적용 절차

1) 학부모 알림

- 2) 매주 월요일 상담과 건강주간점검표 작성 : 담당교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줄여가며 최종 금연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입 후 2주, 4주 차 월요일에 교내 소변검사

- 4) 건강프로젝트 - 최종 탈퇴할 때 까지 매일 운동장 5바퀴 돌기 (학생회 소속 건강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4주 차 소변검사에서 금연을 확인받아야 한다.

- 6) 4주 차 소변검사서 금연에 실패하는 경우,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가족회의에 알리며 초기 가입 상태로 돌아가 처음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심한 중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담임교사와 의논해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 필리핀 체험학습과 움직이는 학교는 건강위원회를 최종 탈퇴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7일 이내에 소변검사에 통과해

야만 참여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특별 소집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에 따른다.

5. 건강위원회 탈퇴 규정

- 1) 금연을 성공하면 건강위원회를 탈퇴 할 수 있다. (4주 후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연위원회에서 친구들의 확인을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 건강위원회 탈퇴 후에 다시 흡연을 할 경우 최초 흡연과 동일한 상황이 적용된다.

- 음주 -

* 음주의 특성 - 흡연과 비교해 중독성은 없는 편이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함께 행하며 음주 후 이성과 자제력을 잃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접근 방향 - 강한 처벌보다는 대화와 상담으로 스스로 음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한다.

1. 1차

- 1) 학부모 알림
- 2) 술에 관한 글을 쓰고, 그것으로 상담 교사와 나누기
- 이번 음주에 대한 기록 / 내 음주의 역사 / 나의 술버릇 / 술을 마신 후의 느낌과 내 몸의 변화
- 3) 금주위원회 위원으로 가입 및 활동 (1년 동안 음주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
- 4) 가족회의 때 상담내용과 소감 발표

2. 2차

- 1) 학부모 알림
- 2) 전체 사과문 발표와 게시
- 3) 마술학교 입학 활동 (술의 유해성에 관한 다큐 시청, 반성 노작 3시간, 청소년 금주에 관한 캠페인 3회)

3. 3차

- 1) 학부모 알림
- 2) 학부모 학교방문 - 가족 금주학교 (가정 안에서의 음주문화 토론, 가족 노작 2시간)
- 3) 가족회의 때 금주학교 내용과 소감문 발표

4. 4차

일주일 귀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돌아옴 (금주학교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 완수 금주에 관한 책임기, 자기 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활동 제시)

- 알콜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
- <내 몸 대청소> 책 읽고 독후감 쓰기
- 봉사활동
- 부모님과 심층 간담회

5. 4차 이후 - 4차 규정 반복 적용

* 위의 차시 적용은 첫 음주부터 1년 안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 상황별 피해 사례에 따라 가족회의에 회부하여 가중처벌 혹은 심층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근처 매점에서 구입했을 경우, 찾아가서 사과 및 협조 요청

- 폭력 -

1. 폭력사건에 대한 판례

1) 단순사건일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수행 진행함

- ① 100배를 1회 한다 (생명평화 100배 서원에 맞춰서)
- ② 자기가 좋아하는 것 10가지, 싫어하는 것 10가지를 적어서 교환한다.
- ③ 각자가 사과문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2) 폭력사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논의될 수 있음

가급적 움직이는 학교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평정위로 이관하여 논의할 수 있음

2. 평정위 폭력사건 절차 (사건이 접수되면)

- 1) 담임 혹은 멘토가 당사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고 사건경위서를 작성한다. 사건 경위서는 가급적 6하 원칙 아래 구체적으로 적는다.
- 2) 평정위 회의 때 담임 혹은 멘토와 해당 학생이 출석하여 진술 절차를 밟는다.
- 3) 평정위는 사건의 정황을 검토 후 책임수행을 정하고 해당학생에게 명령 혹은 제안을 한다
- 4) 명령 혹은 제안을 가족회의에서 동의를 구한다. 동의를 구하기 전 해당학생은 사과를 하고 질의와 응답의 절차를 거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가족회의 혹은 평정위에서 책임수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5) 해당학생은 책임을 수행하고 수행에 따른 관리를 학생위원이 담당하고 평정위에 보고한다.

어떻게 식사하나?

식사조를 짜서 전체 식사를 준비한다.

날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5. 29. 수		배에서 김밥	교사	
5. 30. 목	햄김치볶음밥	물회 매식	제육볶음	
	하린 / 채은, 효연		명아 / 다연, 가원	
5. 31. 금	토스트	볶음밥	부대찌게	
	예림 / 영빈, 시정	성혁 / 승희, 태우	승희 / 시정, 형규	
6. 1. 토	카레라이스	돼지불고기		
	가원 / 하린, 효연	영빈 / 익준, 룬근	교사	
6. 2. 일	두부참치전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다연 / 우정, 예림	시정 / 예림, 명아	형규 / 민정, 채은	
6. 3. 월	계란말이	유부초밥	돼지두부김치찌게	
	상연 / 기완, 우정	효연 / 다연, 명아	기완 / 상연, 승희	
6. 4. 화	치즈감자볶음	오므라이스		
	룬근 / 태우, 상혁	채은 / 하린, 형규	교사	
6. 5. 수	전기밥솥빵	치즈계란말이	떡어묵국+애호박전	
	지형 / 민정, 상혁	상혁 / 성혁, 익준	민정 / 지형, 가원	
6. 6. 목	미역국	고기국수 매식	돼지고기볶음밥	
	태우 / 영빈, 룬근		익준 / 지형, 성혁	
6. 7. 금	계란밥	몸국 매식		
	우정 / 상연, 기완		교사	
6. 8. 토	빵, 잼, 스프, 찐계란 (배안에서 먹기) 교사			

* **체험단** 하린, 기완, 태우, 예림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 **총비용** 366,000원

산돌학교 소개

- 산돌의 교육철학 -

마음공부 - 영성교육과 먹을거리교육

풀 한 포기 낱알 하나에서도 우주를 느낄 수 있고 머리를 조알 남의 발을 씻을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사람과 자연)을 돌볼 수 있고, 밥상을 신전(神殿)처럼 모실 수 있고, 평온하게 스스로 내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구도자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쇄소교육과 생활관교육

자기 주변의 정리정돈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예절교육에 역점을 둔다. 또한 공동체생활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와 인내력을 함양하여 관계를 맺고 풀어내는 힘을 기른다.

노작교육과 예술교육

손과 몸을 쓰는 노작과 예술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전인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독서와 명상과 암송

독서와 명상을 일상화 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세계에 대한 넓고 깊은 성찰을 도모하며, 암송을 장려하며 학습이 체화되도록 이끈다.

자기주도학습

자기개설교과, 논문작성, 선택 수업을 통하여 자신의 관심, 욕구, 적성영역에 맞는 공부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능동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주적인 학습활동을 독려한다.

- 산돌의 기초 교육과정 -

선택수업

기초적인 생활규범과 학력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 기본교과를 필수 이수하며, 3학년 과정에서는 제한적 선택을 허용하는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고등과정에서는 전면적 선택이 보장되는 심화교과를 운영하며 호학심(好學心)과 자발적인 학습태도 및 내적 성취감을 높인다.

통합수업 및 협동학습

주제수업을 통해 각 교과 간 통합과 연계를 도모하여 문제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해결하는 안목과 능력을 키운다.

이동수업

단기 혹은 장기간의 국내외 이동수업(우리땅밟기, 배낭여행, 장기자원봉사활동, 해외이동수업 등)을 통하여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꾸려 삶의 실천력을 다듬는다.

인턴쉽제도

학생이 원하는 직업현장, NGO단체 등을 찾아가 도제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장래 선택할 직업에 대한 영감을 얻어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튜터제도

학생의 개개인의 학사관리와 생활 상담을 담당하는 튜터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학업지도와 집중적인 생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돕는다.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에 편성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통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

주기적으로 지역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현지 거주 장기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익힌다.

재량활동

정규교과 외에 학교사정, 교사수급, 행사, 시류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교육상 필요한 다양한 주기집중교과와 절기수업, 행사, 특강 등을 유동적으로 편성한다.

자치활동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각종행사를 학생중심으로 기획 준비 진행하도록 유도하며, 매주 열리는 전체회의(작구모)와 학년회의를 통하여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의 태도를 배양한다. 특히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의 제반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은 본교만의 선구적 시도이다.

- 시간표 -

산돌학교 하루일정

교시	월					화					수				
						조화(8:40-9:00)					독서모임(8:50-9:30)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09:40-10:20)	** 함께 주를 여는 모임 (12:00 - 12:20)					독서모임					몸다루기	수학			농사
2 (10:30-11:10)						학급활동						동양고전			
3 (11:20-12:30)						미술 / 생태	R.U. ready? / 과학	철학 다큐탐험			우리몸 우리 자신	몸다루기	기독교영성 / free talking		
4 (13:30-14:10)	영어	자원활동	민주시민교육		동양고전	수학	영어	동양고전			생활선택 (요리, 도예, 목공, 손뜨기)	살림	영어 / 생명과학		
5 (14:20-15:00)	농사					예배						농사	생태프로젝트		
6 (15:10-16:20)						작구모									

(잘렸음)

교시	목					금				
	독서모임(8:50-9:30)					주 마 모				
	1	2	3	4	5	1	2	3	4	5
1 (09:40-10:20)	영어	음악 / 미술	농사		졸업 작품	미술 / 생태	영어	몸다루기 / 상상여행 / 우주과학 / 독서		
2 (10:30-11:10)										
3 (11:20-12:30)	연극 / 음악	R.U. ready? / 과학	보컬 / 장구의 신 / 조형예술 / 국사		주제 수업	애니머 그림	주제 수업			
4 (13:30-14:10)	수학	일본어 / 중국어	13:30-15:00 (4,5교시) 연극							수학
5 (14:20-15:00)	음악	수학	14:20-15:30 (5,6교시) 일본어 / 중국어							
6 (15:10-16:20)		풍물	13:30-16:20 (4-6교시) 물리 및 소성 / 남녀의 자유로운 성 / 역사유적답사		** 집으로 가기 전 마치는 모임 (15:00- 15:30)					

(잘렸음)

학 년	목표	내 용
1	학교철학 익히기	•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다양한 체험과 예술활동을 통해 나를 발견한다 - 색소교육, 예술교과 • 학업의 기초와 공부하는 태도를 다지고 생명 평화의식을 기른다 - 평화교육(갈등해결)
2	이웃과 만나기	• 독서를 통해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고 이웃을 만난다 - 독서 • 공동체 및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 집중자원활동
3	사회와 만나기	•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성 및 자기주도성의 신장 - 꿈실현프로젝트 • 집단과 사회를 깊이있게 성찰한다 - 모둠별 주제여행, 민주시민교육
4	세계와 만나기	• 관심과 적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자기주도적 공부법을 익힌다 - 심화학습 •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성찰하고, 해외공동체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나를 확장시킨다 - 영성수련(애니어그램), 장기해외이동수업
5	진로탐색 및 선택	• 직업현장 경험을 통해 나의 길을 탐색한다 - 인턴쉽 • 나의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하며 스승을 찾는다 - 삼인행(三人行), 졸업작품

* 체험단 명아, 효연, 우정, 승희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 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5번지 (숲속마을 작은학교) * 전화 041-753-2586

금산간디학교 소개

금산간디학교는 우리 학교와 같이 '사랑과 자발성'을 교육 철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02년 개교한 고등과정에 이어, 2008년 중학과정이 개교하여 중고등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인격적인 배려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생활을 학교문화로 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길을 완성해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 학생 개인의 잠재력에 근거한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며, 학생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아름다운 진악산 자락에서 대안적인 교육과 문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학교입니다. 학교가 마을 속에 위치하여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 교육과정이 결합하여 교육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소유와 지위를 추구하는 경쟁적이며 서열화 된 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대안문화의 창조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특성 있는 6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지식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감성, 자립 수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금산으로 이전하며 자기발견과 진로 찾기를 강화했습니다.

- 금산간디학교 교육철학 -

- 작은 학교 : 몇 십 명의 작은 학교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가족처럼 생활합니다.

- 위대한 불복종 정신 : 획일화된 기존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갑니다.

- 쓸모 있는 교육 : 문화적 창조자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진정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 탁월성 교육 : 자아의 진정한 표현, 활짝 핀 개성, 고유한 잠재력 속에서 탁월성을 기대합니다.

- 2013학년도 고등과정 교육과정 -

■ 1학기 [자기찾기]

- 자기 탐색의 시기 : 연극, 국토여행
- 자기주도적 학습 익히기

■ 2학기 [사람과 더불어 살기]

- 나눔의 시기 : 봉사체험
- 자기주도적 학습 정착기

■ 3학기 [세상과 더불어 살기]

- 인턴십, 작업장체험
- 선택교과 중심의 학습

■ 4학기 [세계와 더불어 살기]

- 대학 및 진로탐방 체험학습
- 해외이동학습

■ 5학기 [논문발표]

- 개인별 논문 및 졸업작품 발표
- 논문집중기간

■ 6학기 [진로찾기]

- 공동졸업작품
- 진로탐색과 진학준비

- 금산간디학교 열 가지 약속 -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둘, 배우고 일함에 기쁨을 느끼며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자발성)

셋, 자연과 하나됨을 배우겠습니다. (생태)

넷, 서로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용)

다섯,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사랑)

여섯,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

일곱,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넓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혜)

여덟, 건강한 문화의 창조자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

아홉, 학교의 철학과 규칙을 존중하며, 정당한 의견은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자유)

열,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습관(운동, 금연)을 갖겠습니다. (건강)

- 금산간디학교의 하루 일과 -

아침식사 7:40~8:10

청소 8:30~8:45

학년시간, 전체모임 8:45~ ?

1교시 9:30~10:20

2교시 10:30~11:20

3교시 11:30~12:30

점심시간 12:30~2:00

4교시 2:00~3:30

5교시 3:30~4:30

6교시 4:30~5:30

저녁식사 5:30~6:00

그 이후 동아리 시간, 기숙사 입소 및 묵학, 취침준비

- 비용 -

1인 숙박비 3000원, 식사비 4000원(끼니당)
= 하루에 4명 식사비- 48000원
숙박비 4명- 12000원
총 일주일동안 348000원 듬

- 질문 -

- 금산 간디학교만의 전통 또는 문화가 있나요?
- 금산간디 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특징과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금산간디의 좋은 점(자랑거리)이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 여러 체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소통이나 관계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학교 규칙 중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 있나요?
- 중고통합이 아닌 고등과정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 들었던 수업 중 가장 좋았던 수업이 무엇 인가요? (학생에게만)
- 가장 맛있는 급식메뉴는 무엇인가요?
- 산청과 교류를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무엇을 하나요?
- 금산에서는 제천간디를 어떻게 생각 하나요?

- 금산에서 공주로!! -

1. 금산간디에서(보석사) 금산 버스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간다.
2. 금산터미널에서 대전터미널로. (너무 작은 터미널이라서 페이지가 없고 표 값, 버스 시간을 알 수 없다.)
3. 대전터미널에서 천안 터미널로 이동.(대전 터미널이 여러 곳인데 앞에 있는 금산터미널에서 어느 곳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어느 대전 터미널인지 알 수 없다.)
4. 천안 터미널에서 인풍으로 가는 차를 탄다. 그리고 도착~~~~~

찾아 가는 길 - 대중교통 이용 시

1. 광주에서 대전방면 시외버스를 타고 우선 <금산>으로 옵니다!! 대전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금산 행 버스가 자주 있습니다. (문의-금산터미널 : 041-754-2759, 041-754-2100)
2. 그리고 <금산>에서 학교 옆 <보석사>까지 오는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10, 8:30, 11:40, 15:00, 16:40, 18:20
<보석사>에서 <금산>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6:58, 9:14, 12:54, 15:44, 17:25, 19:09입니다. 버스 타는 곳은 금산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3. 보석사 쪽으로 오면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고등 <2013년도 1학기> 수업 시간표

교시	시간	월		화(프로젝트 날)		수		목		금		토일		
오전		아침 식사 (7:40 - 8:10)												
	8:30	청소												
	8:45	주를 여는 시간		학년시간		전체모임		학년시간		전체모임				
1	9:30 - 10:20			학교철학2 (영철) STS 4 (은진) 지식채널 e 1 (오아) 심리학3 (이지연)		영어회화기초1 (영곤)		영어글읽기2 (이현)						
	2								10:30 - 11:20	탁구(행근)7 간디문화1 (한나) 손바느질3 (인옥) 옷만들기5 (지영)	요가8 (김지연)	건기 프로젝트2 (영곤) 카페 프로젝트1 (지원)	야채가게 프로젝트7 (행근) 에코바이크 프로젝트3 (정도) 키노쿠니 프로젝트4 (시은)	영어회화2 6 (영곤)
3		11:30 - 12:30	일본어4 (진현) 영어글읽기2 (이현)		2학년: 인턴십1 3학년: 진로연구3									
	오후	-2:00												
4	2:00 - 3:30	싱어송라이터 5 (유신)	1:30~ 회화6 (미영) 한국정치2(태설) 글쓰기3(민정) 볼링7(성기)			건기 프로젝트	드럼5 (창원)	FL studio 10 (종혁)		여수영1 (은진) 소프리폼6 (해린)	합주5(필순) 바리스타4(형식) 고등수학3(성기) 지역나눔1(은진)		2학년: 해외이동학습 준비 1 3학년: 해외이동학습 정리 3	
			출판 기획1 (성연)	교사연수 통합회의	카페 프로젝트 (목공)				쌈지 텃밭7 (행근)					
	6						4:30 - 5:30				4:00~ 간식공장 프로젝트2 (성연)	UCC1 (보경)		식솔회 /학생총회
저녁 일과		동아리 모임							간디문화(격주)					
	저녁 식사 (5:30 - 6:00) / 기숙사 입소 및 묵학, 취침준비													

사랑1 자유2 지혜3 건강4 음악실5 갯하6 큰아람7 3층8 외부(중학)9 컴퓨터실10

타대안학교 체험 - 산청간디고등학교

- * 체험단 시정, 룬근
-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 * 연락처 : 학교 전화번호 : 055-973-1049

산청간디고등학교 소개

주소 : (666-963)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로 210 (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전화 : 교무실 : 055-973-1049 행정실 : 055-973-8124

- 산청간디고등학교 철학 -

- 건강을 돌보는 일상생활 습관 기르기
-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으로 자기 발견하기
-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배우고 나누기
- 지혜의 탐구의 열정으로 참다운 배움의 기쁨 찾기

- 산청간디학교의 교육 목표 -

-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으로 '행복한 사람'기르기

- 산청간디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

- (1) 지, 정, 의가 조화로운 전인 교육(전인 교육)
- (2) 역사와 사회 속에서 책임성 있는 힘 배양(공동체 교육)
- (3)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 함양(생태 교육)

- 교육과정 기본방향 -

지성 및 감성 등 인격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와 교과내용을 운영한다. 교사가 미리 준비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되어 살아있는 교감 속에서 토론식, 발표식 수업을 한다.

담임교사, 학부모와 상의하여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여 시간표를 짤 수 있게 한다. 교과 특성

에 따라 학년, 연령 구분 없이 학습 능력에 따라 단계별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실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훌륭한 배움터가 있다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또 방학을 이용한 장기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목적 및 특성화 방안에 맞추어 편성 운영하며, 1년 주기로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 교육과정 수리의 원칙 -

본교는 말로만 아닌 실제적인 전인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전인'(whole person)의 요소인 몸, 지성, 감성과 인격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교과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교육과정은 다음 3가지 교과로 구분될 수 있다.

1) 지식교과 :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개 가르치는 과목들인 언어(국어, 영어), 국사, 정치 경제, 공통과학, 수학 등을 다룬다.

2) 감성교과 :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과들이 편성 반영된다. 여기에는 보통 학교에서 다루는 음악, 미술을 비롯하여 우리 가락 우리 춤, 표현예술, 디자인 공예 등이 포함된다.

3) 자립교과 :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여기에는 음식 만들기, 텃밭 가꾸기, 집짓기, 옷 만들기 등의 교과가 포함된다. 이것을 통해 인생에서 여러 모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쓸모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교육과정의 편제 및 단위시간 배당 -

대학 입시를 위해 획일화된 교육현장과 사교육에 의지하는 저수준의 교육현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교육의 현주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디학교가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다양성과 탁월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탁월한 수업을 바탕으로 지식교과와 자립, 감성교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인적인 인간형을 추구하면서, '비틀린 공교육에 대해 우리가 만드는 학교로서 바른 이상을 말하기'를 곳곳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간디학교는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의 형식적인 틀 속에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음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7차 교육과정을 간디학교의 학교철학에 맞춰 구현시키는 과정을 고등학교 2004학년도 신입생의 예를 들어 소개한다.

[본교 7차 교육과정 편성 특징]

1. 진로 선택 다양화 - 학생 개개인의 선택 범위 최대 보장

1학년 :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일부 + 특성화교과 선택

2학년 : 국민공통기본교과 외, 연간 49~53단위의 자유 선택 가능

3학년 : 연간 58~63단위의 자유 선택 → 개인별 진로별 집중 이수

2. 철학교육 강화 - 매 학년 2 단위의 삶과 철학 교과 지정 이수

3. 예체능교육 강화 - 매 학년 10→6→4 단위 지정 및 선택 이수

1학년 : 음악2, 미술2, 체육2 + 감성분야 택4

2학년 : 체육2 + 감성분야 택4

3학년 : 체육과건강4

4. 특성화교과 개발 및 개설 - 매 학년 최소 10단위 이상 이수

5. 무학년(학년통합) 수업 운영 - 민주적 수평관계 형성 및 개인별 능력별 선택 수업

특별활동, 간디문화, 식구총회 등 : 전 학년 통합 운영

특성화교과의 감성 및 자립기초 : 1.2학년을 통합하여 과목 자유선택

보통교과 및 특성화교과의 선택과목 전 분야 : 2.3학년을 통합, 과목 자유선택

[본교 7차 교육과정 편성 실제 - 도표 참조]

학생 선택과목 보장 (111단위)

- 11.12학년 선택과목 136단위의 81% (전체 216단위 중 51% 선택)

→ 특성화교과 선택 18단위 + 자유 선택 93단위

[개인별 진로별 시간표 자율 구성]

진학 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는, 특성화교과를 상대적으로 적게 이수하고, 보통교과의 심화선택 과목의 이수를 늘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직업 계열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특성화교과 과목의 이수를 늘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체능 및 기타 어떤 개인의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학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체계화된 교육과정 체제를 편성, 운영하고자 한다.

특성화교과 이수 원칙

① 필수 지정 1개 분야 - 학교 철학 분야 23단위

② 지정 선택 2개 분야 - 감성 8단위, 자립기초 9단위 이상

③ 자유 선택 4개 분야 - 교양심화, 특기적성, 진로선택-진학, 진로선택-직업

→ 최소 4개 분야 43단위 이수 (총 이수단위수의 최소 20%를 특성화교과 이수)

특성화교과 개발 및 개설 - 7개 분야의 과목 개발 및 개설

① 학교철학 - 간디문화(2× 2) 식구총회(2× 3) 삶과 철학(2× 3) 이동학습(4)

② 감성 - 표현예술(4) 디자인공예(4) 우리 춤 우리 가락(4) 합창합주(4)

③ 자립 - 텃밭 가꾸기(3) 집짓기(3) 음식 만들기(3) 옷 만들기(3) ...

⑤ 교양심화 - 역사의 이해(2) 숲 생태(2) 성과문화(2) NGO탐구(2) 대중문화읽기(2)...

⑥ 특기적성 - 홈페이지제작(3) 수지침(3) 컴퓨터음악(3) 영화로 보는 세상(3) 유럽배낭여행(3)...

⑦ 진로선택(진학) - 언어탐구(4) 수리탐구(4) 사회탐구(4) 과학탐구(4) 외국어탐구(4)

⑧ 진로선택(직업) - 직업연구 I (6) 직업연구 II (6) 직업실습 I (6) 직업실습 II (6)

- 산청간디학교 규칙 (대표적 몇 개) -

제 2 장 생활규정

제 5 조 (금지사항)

학생들은 술, 담배, 폭력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교직원들은 실내 교육공간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이 금지사항은 의결의 안건이 될 수 없다.

제 6 조 (권리)

①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갖는다.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은 생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③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말이나 글 모든 형태의 비인격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기숙사 입소)

① 신입생은 공동체 생활을 익히기 위해 1년 간 기숙사 생활을 의무로 한다.

② 기숙사 입소와 퇴소는 학교가 지정한 날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다.

제 14 조 (학생회 조직)

학생회는 학습부, 미화부, 체육부, 행사부 등 4개 부서로 하며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산청간디학교에서 필요한 것 -

준비물: 필기도구, 노트, 실내화, 생활용품, 여벌의 옷, 세면도구, 이불, 베개(우리 학교생활과 비슷)
별도 비용 부담: 간식비 회당 2000원, 총 12000원/명

요일 학년 교시 반	월				화				수				목				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1 (09:00~09:50)	주를 여는 시간				진로	국어	지식1	지식1	사회	사회	지식3	지식3	국어	한국사	지식1	지식1	수학	수학	지식2	지식5
2 (10:00~10:50)	학급활동		학급활동	학급활동	진로	국어			사회	사회	지식3	지식3	국어	한국사			한국사	삶		
3 (11:00~11:50)	국어	사회	지식1	지식4	영어	과학	이동학 습	지식2	수학	수학	갈성	지식4	과학	영어	지식5	지식2	과학	삶	지식6	
4 (12:00~12:50)	국어	영어	지식3	지식3	사회	과학			수학	수학		지식4	영어	과학						
5 (14:00~14:50)	수학	수학	자립 기초	삶 활	음악	진로	지식2	자립심 화	영어	한국사	특기적성	자립- 옷/음 식만들 기	자립- 텃밭가 꾸기	지식4 (체육)	달일	삶	식구총회			
6 (15:00~15:50)	삶	음악			음악	진로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7 (16:00~16:50)	삶	음악			달일시간	달일시간	한국사	국어												
8 (17:00~17:50)					교사회의								담임 회의							

산청간디학교 시간표

- 산청간디학교 인터뷰 질문지 -

인터뷰 대상자 : 산청간디학교 학생회장

- 학생회

1. 산청간디학교 학생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2. (다른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3. 가족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4. 학교 규칙에서 애매하거나 단점이 있는 규칙이 있나요?
5. 저희 학교는 핸드폰이 사용금지입니다. 산청은 핸드폰 사용 가능이라 들었는데 핸드폰을 사용 장점과 단점 좀 말해주세요.

- 인가 대안학교

1. 다른 대안학교와 교류를 하신 적이 있나요?
2. 비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의 차이점 있다면?
3.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생활하시는 느낌은?

- 생활

1. 고등끼리만 학교생활은 하는데 느끼는 장점과 단점은?

***그 외** : 일단 산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더 자세한건 산청에서 조금 체험을 더 해본후 인터뷰를 질문지를 마저 작성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 산청간디학교 찾아가는 방법 -

1. 광주에서 전주 가는 시간표

요금 일반6,600 우등9,600 심야10,500 **운행간격** 20~40분 **소요시간** 1시간20분
고속버스운행 상세정보 거리(kmm) 105.9 출발 홈 2 첫차 06시05분 막차 23시

운행시간 6:05 6:25(일반) 6:50(일반) 7:15 7:40 8:05(일반) 8:30 8:55 9:20 9:45(일반) 10:15 10:30 10:45 11:15
(일반) 11:45 12:10 12:40 13:05(일반) 13:35 13:55 14:20(일반) 14:45 15:00 15:20 15:40 16:00(일반) 16:25 16:50
17:15(일반) 17:40 18:05 18:30 19:00(일반) 19:30 20:00 20:30(일반) 21:00 21:40 22:20(일반) 23:00

2. 전주에서 산청 가는 시간표 - 요금: 15000 소요시간: 2:30

06:29-임실,오수,남원,운봉,인월,함양,수동,생초,산청,원지,진주	12:4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부산
07:1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산청,원지,진주,마산,창원	13:39-임실,오수,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
08:2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산청,원지,진주,마산,창원	13:5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부산
09:09-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산청,원지,진주	14:40-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마산
09:27-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산청,원지,진주,부산	15:40-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마산
10:24-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	15:53-임실,오수,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
11:12-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마산,창원	16:1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부산
12:31-오수,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	17:25-남원,운봉,인월,함양,생초,원지,진주

3. 광주에서 마산 가는 버스

요금 일반13,300 우등19,400 심야21,300 **운행간격** 11회(주말12회) **소요시간** 3시간
고속버스운행 상세정보: 거리(km) 273.8 출발 홈 3 첫차 07시 막차 월~목 20시20분, 금~일 22시20분
운행시간 7:00 8:20 9:40(일반) 11:05 12:20
13:40(일반) 15:00 16:05(금토일 운행)16:20(월~목 운행) 17:40(일반) 19:05 20:20 22:20(심야:금토일 운행)

4. 마산에서 산청 가는 버스

청소년요금: 7100 **소요시간**: 1시간 45분
출발시간: 07:37 08:37 09:24 10:20 10:35 13:15 14:04 15:34

* 체험단 형규, 영빈, 다연, 채은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서울 꽃피는 학교 소개

- 꽃피는 학교 서울학사가 걸어온 길 -

2007~ 고등과정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2008~ 학년 재학생들과 고등과정을 상을 공유하는 나눔과 워크숍 실시
2008. 12. 종로구 계도에 첫 번째 터전 계약
2009.3.1. 고등과정 첫 배움 여는 식(학생-9명교사-2)
2010. 12. 27. 현 터전(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23번지)으로 이사.
2011. 2. 19 2011학년도 진급생, 편입생과 함께하는 배움 여는 식
2011~ 학점제 적용 운영
2012.2 15년제 민립 꽃피는 학교의 첫 졸업생 배출(예정)

- 꽃피는 학교 서울학사 현황 -

시설현황 - 대지 100평, 건평 70평, 2층 건물에 지하실 구비, 아랫방과 다락방 포함 교실 5개. 입지/환경- 북촌의 문화와 궁궐/녹지가 인접한 지역, 훌륭한 강사진과 뜻있는 이웃들 방문, 교류가 원활한 입지.

교사/강사 - 3명의 교사, 15명의 강사, 수시로 다수의 특강 실시, 마을의 주민과 예인0들, 학교의 모든 어른 선생님

지역 활동 - 학생들과 교사들 이 함께 마을에서 나눔 활동 (동사무소와 연계) *마을과 공유하는 길 찾기와 문화 특강을 준비하고 있음

- 고등과정의 교육목표 -

고등과정의 교육목표는, 고등과정에서 교육목표는 통전에 인간으로 자라자는 과정의 후반부로서 자신의 '새'를 키우는데 있습니다. 유치 -초등과정에서 올바른 얼을 세우고 신뢰가 희망을 간직한 아이들이 중등과정에서 실력을 키우고 진실을 추구하고 가리는 눈을 가졌다면, 고등과정에서는 배움과 삶, 자신과 세상을 고민하는 배움 딸로서 꿈을 키우고 길을 찾습니다.

➡ 고등부의 주요교과 Self Schooling



10학년

꿈을 이루는 길, 대학, 경영학, 약초학, 가게 운영, 실생활 능력, 지리학, 역사, 자원봉사



11학년

중용, 대체의학, 지구학, 국가론, 정치학, 사회학, 평화운동, 대안사회, 국제사회, 생태학



12학년

자신이 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은 실천을 통해 더욱 보완되어가야 합니다.)

- 고등교육의 흐름 -

꽃피는 학교의 고등과정은 첫 단계에서 교, 강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역할이 컸지만, 이제는 과정운영 3년차를 맞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이 두드러집니다. 학교의 기준교과를 선택하고 동아리나 그루 수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을 조직하고 실행하며, 다양한 숨 공부(자기개발활동)를 시도하여 자신의 한계를 넓혀 갑니다. 해를 거듭하여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공부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생존에 그치지 않고 자존으로, 자존에 그치지 않고 공존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평화를 그려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5년제 이전 배움에서 배우고 자극받아 싹을 틔운 예술적 상상력은 중등과정에서 다진 실력을 거름삼아 고등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상상력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포함한 한 세계의 탄생과 성장에 아들마둔 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시간표와 하루 일과 -

들길 따라 학교 들기, 평화 놀이 - 평화놀이란 학교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수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침 열기 - 시낭송, 노래 부르기, 자연과 인사나누기

아침 공부 - 말놀이, 말하기와 듣기, 소리의 요정(리코더), 옛이야기 듣기, 생활의 바른 습관, 한자공부

중심 공부 - 우리말에 깃든 열, 셈으로 만나는 수, 수로 이루어진 세상, 글씨와 마음씨, 동네 학, 이야기로 만나는 신화, 한자, 기하, 동물학, 집짓기, 역사, 지리, 수학, 연극

오후 공부 - 영어, 일본어, 음악, 수공예, 요리, 목공예, 체육, 나기

하루의 일과는 아침활동을 시작하는 7시부터 저녁의 스스로 공부가 마치는 9시까지 정해진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교과수업은 9시부터 통전수업인 주제집중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5시 특별활동 시간 마칠 때까지 진행됩니다. 순수한 교과목 시간은 오전 3시간 10분, 오후 2시간 30분 총 5시간 40분입니다.

1. 꽃피는학교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꽃피는학교는 “조화와 존중의 평화 학교”로서 하늘(열)-땅(문)-사람(새)의 온전한 조화를 지향하는 통전(統全) 철학이 주된 교육철학입니다. 통전(統全)철학은 내면의 정신세계(열)와 현실의 물질세계(문), 그 사이에 펼쳐진 인간세계(새)를 균형, 조화, 발전시켜 두루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참된 내가 실현된다는 사상입니다.

2. 꽃피는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꽃피는학교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참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좋은 것이면 선택 할 수 있는 이해와 용기를 갖게 돕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둘째, 사람이 지닌 발달의 흐름에 따라 교육합니다. 누구나 지닌 발달 과정에 흐름에 따라 제 때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5년 전 과정을 운영합니다.

셋째,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 시간(음악)과 공간(미술), 그 사이를 오가는 나(움직임)라는 매개를 통해 저마다 지닌 재능과 자질이 아름답게 꽃피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연과 전시를 통해 공부의 결과를 꾸준히 나누는 동안 예술성이 더욱 꽃필 것입니다.

넷째, 실질을 중시하는 교육을 펼칩니다. 추상적인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더욱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안 되면 뭘 때까지 계속해서 단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완성도 있게 이루어내기, 공부를 해도 건강으로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을 중시합니다.

다섯째, 자연의 흐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죽어가는 인간의 삶을 다시 되살리려 합니다. 이에 24 절기의 변화를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절기학기를 운영합니다. 하루와 일주일, 한해의 흐름을 따라 교육합니다. 일주일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기 중에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학기제를 실시하며,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맞추어 축제를 열립니다.

여섯째, 열문새학습법으로 공부합니다. 통전(統全)철학을 학습과정에 담은 학습법입니다. 내면의 정신세계와 현실의 물질세계, 그 사이에 펼쳐진 세계, 세상에 해당되는 영역이 교과목에 연결되고 하나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두루 온전하게 학문을 탐구하고 깨우치며 실천하는 학습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과 물질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인간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 합니다. 노래와 봉사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수업의 배치

기본 제공 수업의 배치

과목공부 1 (매년 학기별로 집중)

봄~가을	봄/여름/가을
경전/국선도/리코더/중국어/일본어 연극/판소리/미술 등	봄~국어, 여름~영어, 가을~수학

과목공부 2 (학기별로 집중)

월요일~목요일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10학년	역사 · I	사회 · 문화	물리
11학년	화학	정치 · 경제	생물
12학년	역사 · II	지구과학	철학

대안(代案)과 통전(統全) 수업의 배치

	봄학기(열)	여름학기(문)	가을학기(새)
10학년 (열)	맑은 영성의 추구	의식주 자생의 길	함께 하는 사회, 사회 통합과 사회 복지
11학년 (문)	통전성을 바탕으로 둔 자연치유	석유 너머 대체에너지	알과 삶의 일치, 대안교육
12학년 (새)	회적 기업 ·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경제, 대안화폐	시민사회학, NGO와 국제평화

학교 규칙

담당쌤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다함.

비용

교통비

지하철비

채은&다연 왕복 2100원.

형규 왕복 2300원

영빈 왕복 2700원

5일치 - 46000원

광주-동서울 터미널 일반 요금 19000원

$19000 \times 4 = 76000$ 원

서울남부터미널-천안버스터미널 일반 5500원

$5500 \times 4 = 22000$ 원

총 $46000 + 22000 + 76000 = 144000$ 원

교사1명, 학생회장1명 인터뷰

1. 자신이 생각하는 꽃피는 학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 꽃피는 학교가 도시대안학교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중고등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4. 제천학생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5. 제천간디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6. 꽃피는 학교에 대해서 자랑해주세요^0^
7. 대안학교라는 자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8. 초등 때부터 만나온 친구가 현재 고등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험단 민정, 지형, 가원, 상혁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산티학교 소개

산티는 마음의 평화, 정적이라는 뜻이다

- 산티학교의 교육철학 -

- * 중심가치관 : 생명존중/ 사랑으로 품어주기/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 * 교육목표 : 전체와 부분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생명·생태적 삶을 사는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사는 이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이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이
- * 교육방향 : 민주적인 훈련을 하는 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산티학교의 특징

1. 세계를 학습의 현장으로 삼는 학교

- 매년 해외이동학습이 진행됩니다.
- 1년은 두 학기로, 한 학기 중의 일부는 해외이동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2학기에 해외이동학습이 잡히면 3개월은 국내수업, 50일 정도는 해외이동학습이 진행됩니다.
다만 고3은 인턴십 기간이므로 희망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유람이 되지 않도록, 상당기간을 한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익히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도전정신 배양, 영어습득 등과 함께 청소년 시기에 이뤄지는 세계관 형성에서 인식의 경계를 허물고 인식의 확장에 기여합니다.
- 현재 가능지역으로는 인도·네팔(생명누리지부), 라오스·태국·캄보디아·베트남(생명누리지부), 몽골(생명누리), 중국(생명누리), 미국(Amisery공동체), 일본(야마기시공동체)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산티학교 설립취지와 과정

“산티”는 인도의 옛말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학교는 국제 NGO ‘생명누리’의 인도 힌두푸르지부에서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산티스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산티스쿨은 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들이 인도에서
생명nur리의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는 단기해외체류 대안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2010년부터 생명누리 한국본부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인 ‘인디고 여행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대안학교를 만들어갈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생명nur리와 상주환경농업협회가 함께
2011년 3월 상주환경농업학교에서 학생 32명과 선생님 10명으로 개교하여
2011년도 1년간은 상주에서 국내학습과 인도-네팔에서의 해외이동학습을 마쳤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문경시 농암면 (구)청암중고등학교터에서 49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 4명의 강사와 함께 제2기 산티학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산티학교는 다양한 대안학교들의 공통된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 안을 것입니다.
즉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 자립,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협동,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가는 자율,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서 출발하는 자기주도학습 등은
산티학교도 표방하는 공통된 교육이념입니다. 다만 여기에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
낮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해외이동학습)라는 산티학교만의 두 가지 덕목이 더해집니다.

산티학교는 비인가 기숙형 대안학교이며, 중고등 통합형 6년 과정입니다.
1년은 2학기로 구성되며 그 중에 한 학기의 일부는 해외이동수업으로 진행됩니다.

2013학년도 1학기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조례 9:00 ~ 9:30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1교시 9:30 ~ 10:20	영 어 회 화 (2)	민 주 시 민 (3)	공 학 기 초 (45)		독 토 글 (2)	과 학 발 명 (3)	동 아 시 아 (4)	자 유 독 서 (5)	글 쓰 기 345	한 국 사 I (2)	음 악 (5)			자 유 독 서 (5)	음 악 (4)	숲 생 태 놀 이 (23)	음 악 (2)	상 담 전 공 45	직 업 영 화 345	자 유 독 서 234
2교시 10:30 ~ 11:20	영 어 회 화 (3)	영 어 리 딩 A (45)	요 리 (전)		독 토 글 (3)	과 학 발 명 (2)	미 술 치 료 (45)			요 리 (전)	독 서 치 료 (8번)	노 동 (전)	영 어 리 딩 B (45)	친 로 코 칭 (5)	영 어 리 딩 C (45)		생 활 수 업 (12)			
3교시 11:30 ~ 12:20																				
4교시 1:30 ~ 2:20	금 속 목 공 예 (고)	영 어 회 화 (중)	음 악 (1)	자 연 살 림 (전)	글 쓰 기 345	만 다 라 (1)	금 속 목 공 예 (초)		합창				느 낌 나 무 (34)	수 학 (초)	독 서 치 료 (강연)	컴 퓨 터 활 용 II (전)	산 티 인 쇄 소 (전)		독 일 어	
5교시 2:30 ~ 3:20		영 어 회 화 (고)							체육				느 낌 나 무 (12)	수 학 (중)		학생회의 & 산티디화				
6교시 3:30 ~ 4:20	농 사 (45)	영 어 회 화 (고)	음 악 (3)		독 토 글 4	봉 사 활 동 5	농 사 (23)													
7교시 4:30 ~ 5:20		교사 회의											난 타 (12)	교사 회의						
보충																				

· 1/2/3/4/5/전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전학년

· 초/중/고 : 초급, 중급, 고급

《꼭 읽어주세요!!》

- 2~5학년의 최저이수학점은 26학점입니다.
- 자기주도학습 시간은 빈칸으로 표시하고, 수업계획서는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세요. (2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5학년 자유독서」와 「글쓰기전공」은 주 2회 수업입니다.
- 「독서치료」는 수강희망학생에 따라 1:1 수업으로 개설되며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 「공과심리」는 방과후 수업으로 한 학기에 30만원의 별도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수업신청 하세요.
- 「공과심리」는 목요일 저녁(19:00~22:00)에 진행됩니다.
- 매주 화요일 19:00~21:00에 학생임원들은 전원 리더십수업(회의법)에 참석해야 합니다.
- 「에너지농부」 과정은 목요일 전일(9:30~18:00) 진행됩니다.



하루와 한 주 흐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00	기 상						자유시간
~ 8:20	청소 및 세면 후 등교						
~ 9:00	아침식사(40분)					학부모 주말사감의 재능기부 수업참가 (자율) 및 동아리 활동	
~ 9:30	담임시간 및 아침독서시간(30분)						
~ 9:40	휴식(10분)						
~ 12:30	1교시 ~ 3교시 * 필수교과 및 선택교과 * 50분 수업 (10분 휴식)						
~ 13:4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70분)						
~ 18:00	4교시 ~ 7교시 * 필수교과 및 선택교과 * 50분 수업 (10분 휴식)						
~ 19:30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90분)						
~ 21:30	산티 대화	목학 동아리활동	학생 회의	목학 동아리활동	목학 동아리활동	생활관 회의	
~ 22:00	담당구역 및 생활관 청소						
~ 22:30	하루정리(30분) 후 1차 소등						
23:00	2차 소등 후 취침 (생활관 내 휴게실과 목학실은 24:00까지 활용가능)						

* 목학시간은 대체로 그날 학습에 대한 정리와 뒷날 학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상담이나 동아리 활동 준비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져 얼마 되지 않은 학교인 만큼 해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듯 하다.

- 최근 2012년 2학기 산티학교 교육과정 운영안 -

I.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원칙과 주요 변화

1.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의 분리 실험

- 중학과정과 고등과정의 교과 분리 실험 (2013년 본격 실시)
- 2003년 중학과정의 커리큘럼 완성(졸업논문 등)

- 고등과정은 진로중심 전문과정, 인턴십 과정 편성

2. 동아리 활동 / 자기주도 학습의 강화

- 1인 1기 이상의 동아리 활동으로 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시간으로 활용
-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주도학습 강화(학생이 개설하는 수업, 개인프로젝트수업)
- 멘토제 활성화(학부모 멘토, 지역인사 멘토 포함)

3.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

- 문경과 인근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과 더불어서 삶의 성장과 학습을 추구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연적 환경 활용 (귀농자 연계 농업교육, 서예, 화선지 등)

4. 학생/학부모/교사 3주체가 만드는 교육과정 편성

- 산티학교는 신설학교의 특성을 살려,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교과 편성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합니다.
- 학운위 산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합니다.(8월 학부모총회)
- 학생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여름방학 중 의견수렴, 8월초 수강신청)
- 7월말까지 수업계획서 카페 공지.(8월초 수강신청)

5. 프레네 교육 철학의 도입, 실험

- 프레네 교육은 자발성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인 절차, 소통을 중요시
- 프레네교육철학 교사 연수 (성장학교 별과 교류)
- 2학기 프레네 교육 방식 실험 도입 (자유글쓰기, 꾸아드네프, 전체회의, 신문사 등)
- 2013년 중등과정에 본격 도입

프레네 교육은?

프랑스의 진보적인 교육자 셀레스탱 프레네의 교육실천에서 비롯된 교육방법론이다. 프레네 교육은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와 자발성을 매우 중시한다. 짜여진 계획표에 따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기초해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배운다.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가르거나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며,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의 원리에 따라 함께 공부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운영이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동등한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교사들의 나눔과 연대를 통해 모든 자료와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발전되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교육방법론이다.

	월	기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요행사
겨울방학	2	1~2	1/27	28	29	30	31	1	2	
		3~9	3	4	5	6	7	8	9	
		10~16	10	11	12	13	14	15	16	
		17~23	17	18 교사연수(2차)	19 교사연수(2차)	20 교사연수(2차)	21 교사연수(2차)	22 교사연수(2차)	23	
		24~3/2	24 임원LT	25 복교	26 1학기OT	27 1학기OT	28 1학기OT	1 입학식/수료식 학부모총회	2	입학식/OT
1학기	3	3~9	3	4	5	6	7	8	9	
		10~16	10	11	12	13	14	15	16	
		17~23	17	18	19	20	21 학생회선거	22 귀가	23 귀가	학생회선거
		24~30	24 귀가	25 복귀	26	27	28	29	30	
	4	31~6	31	1	2	3	4	5	6	
		7~13	7	8	9	10	11	12 귀가	13 귀가	
		14~20	14 귀가	15 복귀	16	17	18	19	20 419마라톤	419마라톤
		21~27	21 개교기념일	22	23	24	25	26 동학기념	27 동학기념	동학문화제
	5	4/28~4	28	29	30	1	2	3 귀가	4 귀가	
		5~11	5 귀가	6 복귀	7 국내이동(단)	8	9	10	11	국내이동(단)
		12~18	12	13	14	15	16 가정학습주간	17	18	가정학습주간
		19~25	19 복귀	20	21	22	23	24	25	
	6	26~6/1	26	27	28	29	30	31	1	
		2~8	2	3	4	5	6	7	8	
		9~15	9	10	11	12	13	14 귀가	15 귀가	
		16~22	16	17	18	19	20	21	22	
	7	23~29	23	24	25	26	27	28	29	
		30~6	30	1	2	3	4	5	6 방학식	학부모총회
		7~13	7 귀가	8	9	10 교사연수 & 해외이동OT	11 교사연수 & 해외이동OT	12 교사연수 & 해외이동OT	13 교사연수 & 해외이동OT	
		14~20	14 교사연수 & 해외이동OT	15 해외이동OT	16 해외이동OT	17	18	19	20 해외이동출국	산티캠프
여름방학	8	21~27	21	22	23	24	25	26	27	
		7/28~3	28	29	30	31	1	2	3	
		4~10	4	5	6	7 교사연수	8 교사연수	9 교사연수	10 교사연수	
		11~17	11 복귀	12 개학/2학기OT	13 2학기OT	14 2학기OT	15 2학기OT	16 2학기OT	17 2학기OT	
	9	18~24	18	19 국내외이동(장)	20	21	22	23	24	
		25~31	25 복귀	26	27	28	29	30	31	
		1~7	1	2	3	4	5	6	7	
		8~14	8	9	10	11	12	13 해외이동입국	14	
	10	15~21	15	16	17	18 추석연휴	19 추석	20 추석연휴	21	
		22~28	22	23 복귀	24	25	26	27	28 신입모집공지	
		9/29~5	29	30	1	2	3	4	5	
		6~12	6	7	8	9	10	11 산티문화제	12 산티문화제	산티문화제
	11	13~19	13 귀가	14	15	16 복귀	17	18	19	
		20~26	20	21	22	23	24	25	26	
		27~11/2	27	28	29	30	31	1 귀가	2 귀가	
		3~9	3 귀가	4 복귀	5	6	7	8	9 신입생면접	학생의날주간
2학기	12	10~16	10	11	12	13	14	15	16 김장담기	
		17~23	17	18	19	20	21	22 귀가	23 귀가	
		24~30	24 귀가	25 복귀	26	27	28	29	30	
		1~7	1	2	3	4	5	6	7	
	1	8~14	8	9	10	11	12	13	14	
		15~21	15	16	17	18	19	20	21 방학식	
		22~28	22 귀가	23	24	25	26 교사연수	27 교사연수	28 교사연수	
		12/29~4	29	30	31	1	2	3	4	
	2	5~11	5	6	7	8	9	10	11	산티캠프
		12~18	12	13	14	15	16	17	18	산티캠프
		19~25	19	20	21	22	23	24	25	산티캠프
		26~2/1	26	27	28	29	30 설연휴	31 설날	1 설연휴	2/15 졸업식

- 규칙 -

우리학교와 비슷한 점

- 학부모님들의 일일사감제를 두어 원활히 운영한다.
- 10:30분에는 소등 후 취침을 한다.
- 악기사용 및 음향기기는 자유 시간에 휴게실(비밀의 방)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방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생활관에서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으며 생활교사에게 맡겨 두고 찾아 사용한다.
- 용돈은 주말 외출 시, 귀가 시에 - 남녀의 상호 생활관 출입은 금한다. 단 오픈하우스 일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생활교사에게 받는다.

우리학교와 다른 점

- 귀가는 한 달에 한번으로 정한다(학부모의 승인이 있을 경우 주말 귀가가 가능하다. 금요일 22시~일요일 20시)
- 방장과 부방장의 선출은 그 방의 쾌적함과 평안함을 위해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사 생회와 생활교사가 임명한다.
- 휴대폰과 그 외의 전자기기는 달는 시간에 방별로 수거하여 사감에게 맡기고 다음날 오후 저녁식시 후에 돌려 받는다.
- 서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으며, 꼭 필요하면 생활교사에게 요청하고 생활교사는 학부모에게 알려 회수한다.
- 흡연은 학내,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을 금한다. 다만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일과(오전9:20~오후6시)외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흡연자 모임은 대표교사, 생활교사의 주관으로 회의를 하며 규칙을 정해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알린다).

광주→청주 시외버스터미널→점촌 종합버스터미널→농암행을 타고 농암 면사무소에서 내림.
점촌터미널 맞은 편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고, 그 앞의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합니다..

“농암”행 시내버스를 타고, “농암 면사무소”에서 내리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4~50분소요)

*광주에서 청주까지 :일반-12900원, 우등-18800원 청주에서 점촌까지:10600원 점촌에서 마을버스타고 학교로 가
기:약 5000원?

점촌 → 농암(학교)

06:50 07:30

08:10 09:30

10:30 11:30

11:50 12:50

13:30 14:50

15:30 16:50

17:30 18:30

19:10 20:10

농암(학교) → 점촌

07:00 07:45

08:40 09:45

10:00 10:30

10:40 11:50

13:15 14:20

15:10 15:50

17:10 18:20

19:00 19:40

* 체험단 익준, 성혁, 상연

* 체험일 2013년 6월 9일 ~ 6월 14일

* 개인 준비물 실내화, 개인컵, 침낭

지혜학교 소개

- 지혜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 편성의 이념

생태교육, 인문·철학교육, 지혜교육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지혜학교 교육이념인 '지혜와 사랑'을 구현한다.

지혜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특성

- 1)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기초과정(2년-생태교육), 본과정(3년-철학교육), 심화과정(1년-지혜교육)의 학제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각 학제 간 유기적 통합성이 있어야 한다.
- 2)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 3) 지혜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교과에서는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한다.
- 4) 내용은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구성한다.
- 5) 교과영역 : 지혜교과영역, 예체능교과영역, 일반교과 영역
- 6) 비교과영역 : 독서세미나, 개설수업, 명상수련, 통합기행, 518기념주간, 인권주간, 환경주간, 진로교육, 성교육, 체육대회, 축제, 한마당, 공동체적 생활 교육 등

- 과정별 교육과정 -

1) 6개년 통합 교육과정

기초과정에서는 생태, 독서, 생활 교육에, 본과정에서는 철학·인문, 진로탐색 교육에, 심화과정에서는 지혜, 진로교육에 중점을 둔다.

2) 3개년 임시 고등과정

고등과정에서는 본과정(2년)과 심화과정(1년)으로 학제를 구성하되, 2012학년도에는 본과정은 통합과정 4~5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6학년은 별도로 편성하여 실행한다. 아울러 2013학년도부터는 통합 6년 과정의 교육과정으로 단일화 하여 시행한다.

- 6개년 과정별 교육과정의 목표와 중점 -

기초과정(2) : 생태·독서교육, 생활교육 중점

-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 : 생태교육
- ▶ 본 과정 준비를 위한 기초적 지식 습득 : 독서교육, 토론교육, 평화교육, 언어·외국어 교육
- 본 과정(3년) : 철학·인문교육, 진로탐색교육 중점
- ▶ 철학적 사유의 본격적인 계발 : 철학교육의 강화
- ▶ 깊이 있는 학문 탐구 : 인문·철학, 개별교과교육
- ▶ 진로준비과정 운영 : 진로탐색, 진로특강, 진로통합기행 등
- 심화과정(1년) : 지혜, 진로지도교육에 중점
- ▶ 지혜학교 교육의 완성 : 지혜교육, 논문 및 포트폴리오 연구
- ▶ 지혜교육 : 지혜교육 심화
- ▶ 진로지도교육 : 진학, 사회진출

- 교육철학 -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일반적 철학교육
논리적 정합성을 기르는 교육
과학사·사회사와 결합된 세계철학사 학습
정밀한 언어 사용 교육

산업문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태사상교육
생태학 교육
생태학 사회적 적용 교육
생태주의 철학, 윤리 교육

존재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 묻고 찾아보는 지혜교육
자기반성과 성찰교육
경청과 소통 교육
동서고금의 지혜철학 학습

- 하루과정 -

기상:7:00까지 기상
퇴소:8:00까지 퇴소
아침식사:8:00~8:30까지 아침식사
아침조회:8:30~9:00까지 아침조회
오전수업:9:00~12:30까지 오전수업
점심식사:12:30~1:50까지 점심식사
5,6교시:1:50~3:40까지 5,6교시
7,8교시:4:10~5:50까지 7,8교시
저녁식사:5:50~7:00까지 저녁식사
묵학:7:00~9:30까지 묵학
기숙사청소:9:30~10:30까지 기숙사청소
취침:10:30~11:30까지 취침

- 학교규칙 -

핸드폰은 주말에만 사용가능
MP3 아이팟, 갤럭시 플레이어 사용 불가능
외출은 일요일만 가능
매점은 가능
우리학교와 같은 술, 담배, 인스턴트는 불가

- 2013학년도 학사일정 -

월	요 일								학교행사	귀가 및 귀교일	비 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	1	25	26	27	28	3/1	3/2	3/3	1 : 개학식/2 : 졸업식 3 : 입학식	28 : 오후 5시 귀교	1 : 삼일절 3.2-3/학부모총회
	2	4	5	6	7	8	9	10	4~9 : 재학생 OT		
	3	11	12	13	14	15	16	17		15 : 오전 10시 귀가 17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4	18	19	20	21	22	23	24			3.23-24/학부모대학1강
	5	25	26	27	28	29	30	31	25~28: 열린주간	29 : 오전 10시 귀가 31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4	6	1	2	3	4	5	6	7			5 : 식목일
	7	8	9	10	11	12	13	14		12 : 오전 10시 귀가 14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14 : 검정고시
	8	15	16	17	18	19	20	21			20-21/학부모대학2강
	9	22	23	24	25	26	27	28	4/22~25 : 통합기행 22~25 : 열린주간	26 : 오전 10시 귀가 28 : 오후 5시 귀교	
5	10	4/29	4/30	1	2	3	4	5			5 : 어린이날 8 : 어버이날
	1	6	7	8	9	10	11	12	6~9 : 학습점검주간	10 : 오전 10시 귀가 12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2	13	14	15	16	17	18	19	18 : 518 행사		15 : 스승의 날 17 : 석가탄신일
	3	20	21	22	23	24	25	26	20~23 : 열린주간	24 : 오전 10시 귀가 26 : 오후 5시 귀교	
	4	27	28	29	30	31	6/1	6/2			
6	5	3	4	5	6	7	8	9	환경주간	7 : 오전 10시 귀가 9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6 : 현충일
	6	10	11	12	13	14	15	16	14~15 : 개교기념한마당		15-16/학부모대학3강
	7	17	18	19	20	21	22	23	17~20 : 열린주간	21 : 오전 10시 귀가 23 : 오후 5시 귀교	
	8	24	25	26	27	28	29	30			
7	9	1	2	3	4	5	6	7	1~4 : 학습 점검 주간	5 : 오전 10시 귀가 7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10	8	9	10	11	12	13	14			13-14/학부모대학4강 17~24 : 통지표 마무리 20~21 : 입학전형캠프
	11	15	16	17	18	19	20	21	17 : 여름방학식	17 : 오전 11시 귀가	20~21 : 전형캠프 25~26 : 평가연수
		22	23	24	25	26	27	28			
8		7/29	7/30	7/31	1	2	3	4			31-4/학부모여름집중명상 (술성수도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2~14 : 독서캠프 15~17 : 계획직무연수
		19	20	21	22	23	24	25			8.24/ 2학기맞이 학부모대청소
		26	27	28	29	30	31	9/1		9/1 : 오후 5시 귀교	
9	1	2	3	4	5	6	7	8	2 : 2학기 개학		7-8/학부모대학5강
	2	9	10	11	12	13	14	15		14 : 오후 2시 귀가 14~17 : 6학년 미귀가	
		16	17	18	19	20	21	22		22 : 오후 5시 귀교	18~20 : 추석연휴
	3	23	24	25	26	27	28	29			
10	4	9/3 0	1	2	3	4	5	6			3 : 개천절
	5	7	8	9	10	11	12	13		11 : 오전 10시 귀가 13 : 오후 5시 귀교 6학년 미귀가	9 : 한글날
	6	14	15	16	17	18	19	20	14~18 : 학습점검주간		19-20/전체 학부모옴티
	7	21	22	23	24	25	26	27	21~24 : 열린주간	25 : 오전 10시 귀가 25~28 : 6학년 미귀가	26~27 : 전형캠프
11	8	28	29	30	31	11/1	11/2	11/3		28 : 오후 5시 귀교	
	1	4	5	6	7	8	9	10	7 : 대학수학능력시험	8 : 오전 10시 귀가 10 : 오후 5시 귀교	
	2	11	12	13	14	15	16	17			
	3	18	19	20	21	22	23	24	18~21 : 열린주간	22 : 오전 10시 귀가 24 : 오후 5시 귀교	
	4	25	26	27	28	29	30	12/1			
12	5	2	3	4	5	6	7	8		6 : 오전 10시 귀가 8 : 오후 5시 귀교	
	6	9	10	11	12	13	14	15	9~13 : 학습 점검 주간		
	7	16	17	18	19	20	21	22	21 : 축제	22 : 겨울방학식	21-22/학부모대학6강
		23	24	25	26	27	28	29			25 : 성탄절 23~28 : 통지표 마무리
2014 1		12/30	12/31	1	2	3	4	5			2014.1.1.-5 / 학부모겨울집중명상
		6	7	8	9	10	11	12			9~10 : 평가연수 11~12 : 전형캠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22: 캠프 23~25 : 계획연수 및 직무연수
		27	28	29	30	31	2/1	2/2			31 : 설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23/신학기맞이 학부모대청소
	24	25	26	27	28	3/1	3/2	3/1 : 졸업식 3/2 : 입학식/개학식	27 : 오후 5시 귀교	3.1-2/학부모총회

- 타 대안학교 인터뷰 질문 -

Q:지혜학교를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가요?

Q:지혜학교 에서는 MP3와 핸드폰은 되는데 MP3 종류인 아이팟 이나 갤럭시 플레이어는 왜 사용할 수 없나요?

Q:지혜학교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먹어선 안되는 데 매점을 연 이유는 무엇인가요?

Q:지혜학교 하루일과를 보니 시간표가 굉장히 빡세던데 학생들이 힘들어 하지는 않나요?

Q:학사일정을 보니 개교기념 한마당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던데 그 행사 때는 무엇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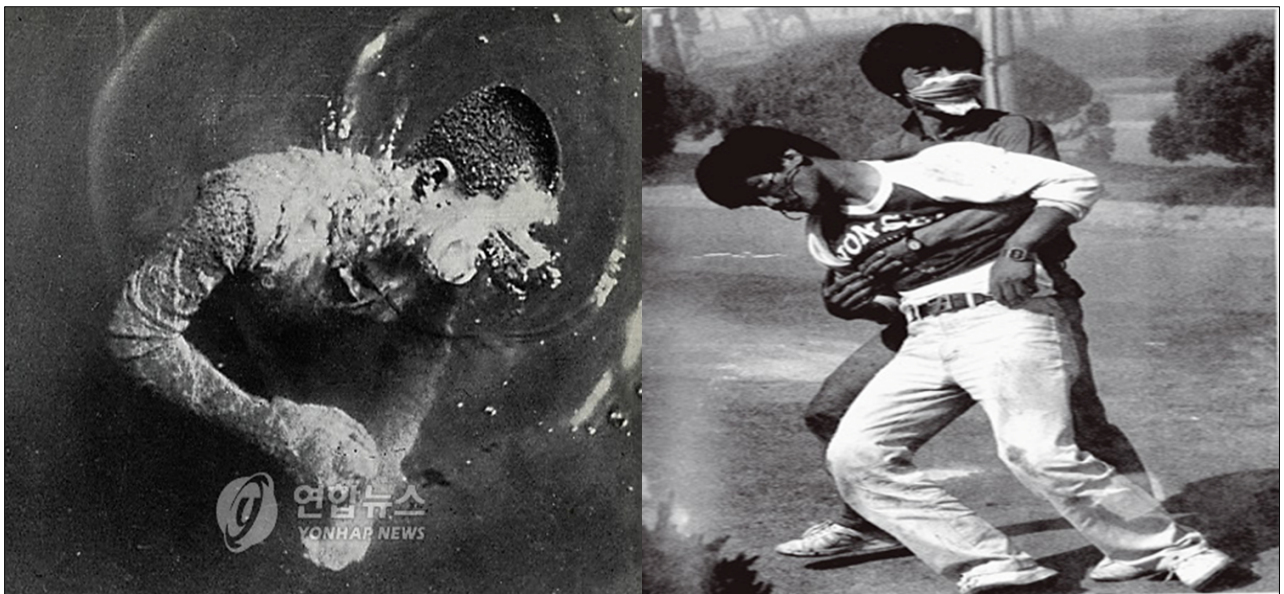
Q:지혜학교 학생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4.19 혁명과 6.10 항쟁 - 김정환 쌤

36년 동안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보낸 우리나라는 해방 후 3년 동안의 미군정 시기를 보내고 나서야 첫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1948년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 정치이념과 방식에 있어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였으나 오랫동안 법치국가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세월을 보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명의 독재자가 1948년부터 1987년까지 38년 동안(장면 정권 1년 남짓 제외) 통치하였으니 정부 수립 후 올해까지(2013) 66년 중 38년이나 독재정권 아래 있었던 것이다.

이 암울했던 한국 정치사에서 4.19 혁명과 6.10 항쟁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의 독재 정권 중 두 번의 독재정권을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법치국가와 민주공화정에 다가갔던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두고 선진국들이 몇 백 년에 걸쳐 이루어낸 것을 단 몇 십 년 만에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치국가와 민주공화정이라는 '선진 정치제도'를 이렇게 몇 십 년 만에 치열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낸 역사 또한 드물기에 우리는 두 사건을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의 '사랑과 자발성', '비폭력, 생명평화'와 같은 교육철학과 방침들은 정해놓았다고 그런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행동과 실천 속에서만 실재하는 것처럼 법치국가와 민주공화정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천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4.19 혁명과 6.10 항쟁은 나란히 독재정권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수작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4.19 혁명에서는 마산 앞 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주검을 찍은 사진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6.10 항쟁에서는 이한열 열사가 정신을 잃는 것을 옆의 동지가 끌어안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도화선이 되었다.

물론 6.10 항쟁 전 김대중과 김영삼이 이끌던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천만인 서명 운동이나 수사를 받고 있던 학생운동가 김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숨진 '김종철 고문 치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대

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하게 정권을 지켜내고자 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처럼 헌법 개정 논의를 아예 금지시키는 강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이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뇌사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지펴졌고,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돌아오는 무수한 최루탄과 무자비한 체포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분노를 느끼며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렸던 저금리·저유가·저환율 ‘3저 호황’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하던 한국 경제는 정치적 관심 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중산층들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대학생들과 야당의 주장에 좀처럼 동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6.10 항쟁에 등장한 ‘넥타이 부대’는 중산층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 큰 타격이었다.

결국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화 요구를 선언한 ‘6.29 선언’을 전두환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6.10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 뜨거운 국민들의 분노를 받으면서도 87년 대선에 출마할 노태우를 밀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결국 87년 대선에서 승리하지만 우리는 6.10 항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거머쥔 수 있었다. 또한 6.10 항쟁은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억눌려 있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더위가 성큼 성큼 찾아오는 6월. 산에는 오디, 산딸기가 여물고 무논에는 모가 무럭무럭 자라는 성장의 시기인 6월. 갓 태어난 한국의 민주주의는 86년 6월 한 달동안 무수한 시민이 거리에서 보낸 시간만큼 자랐습니다. 움직이는 학교 중 하루 잠깐이라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린 분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보는 6.10 항쟁

3831 명 - 6월 10일 전국적으로 연행된 사람의 수

17 일 - 6.10 시위가 계속 이어진 기간

2145 회 - 17일간 열린 총 집회의 수

35만 발 - 17일간 시민들에게 발사된 최루탄의 수

증심사



➔ 대중교통

광주시내에서 증심사행 버스 9, 35, 50, 51, 54, 76번 이용 (버스종점 하차)
 지하철 1호선 '증심사입구역' 하차 후 1번 출구 / 버스 9, 35, 50, 51, 54, 76번 이용
 시내버스 종점에서 증심사까지 걸어서 20분 소요

➔ 자가용

서울 → 광주TG → 문흥IC → 제2순환도로 → 학운,증심IC → 증심사 (4시간 소요)
 부산 → 동광주TG → 문흥IC → 제2순환도로 → 학운,증심IC → 증심사 (4시간 소요)

➔ 고속버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 광주 → 증심사(시내버스)

➔ 기차

서울 → 광주역 → 증심사(시내버스)
 서울 → 광주송정역 → 증심사입구역(지하철) → 증심사(시내버스)

- 2013년 6월 08일 (토요일) -

일정	프로그램	내용	운영자	장소
오후 4:00~4:30	입방,오렌테이션	참가자 확인등(옷)	템플담당	
오후 4:30~5:00	증심사 해설	증심사 역사	해설사	증심사
오후 5:30~6:30	저녁 공양	공양		공양간
오후 6:30~7:30	저녁 예불	저녁예불 참석	지륵스님	대웅전
오후 7:30~8:30	108배	108 참회	지륵스님	취백루
오후 8:30~9:00	자유시간 및 취침준비	9시부터 취침		자인당, 행원당

- 2013년 6월 09일 (일요일) -

일정	프로그램	내용	운영자	장소
오전4:00~4:30	기상	정리및 세면		자인당 행원당
오전4:30~6:00	새벽예불	새벽예불	지륵스님	대웅전
오전6:00~7:00	아침공양	아침공양		공양간
오전7:00~8:30	무등산 산책	산책 자유시간		무등산
오전8:30~9:00	법문	주지스님 법문	주지스님	취백루
오전9:00~10:30	연꽃등 만들기 소감문쓰기	연꽃 컵등만들기		행원당
오전10:30~11:00	방사정리			
오전11:00	회향			

* 증심사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용어 -

- 1) 참회 :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
- 2) 참선 :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히고 비우는 것
- 3) 발우공양 : 스님들이 쓰시는 그릇을 발우라 하며 식사를 공양이라 한다. 발우 공양이란 만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몸을 이어가기 위해 소박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주어진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말한다.
- 4) 수계와 염비 : 수계란 정통 불가에서 정식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 계를 받는 의식으로 염비(팔에 향을 대어 그동안의 죄를 씻어내는 것)와 법명을 받게 된다.

-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 -

- 1)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용히 한다.
- 2) 일주문에 들어서면 큰 법단 쪽을 향해 반배를 한 후 정숙을 지키며 곧장 큰 법당으로 향한다.
- 3) 법당 앞을 지나치거나 법당에서 상당을 지나칠 때는 합장 반배한다.
- 4) 신도나 스님을 만나면 합장(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는 것)하고 반배(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 5) 특별한 일없이 불전에 들어가거나 탑에 오르지 못하며 침을 아무 데나 뱉어서는 안 된다.
신발을 끌거나 급히 걸거나 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잡담을 삼가 하여야 한다.
- 6) 법당문 출입할 때의 예절
법당에 들어갈 때는 좌우 양쪽의 문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가운데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문은 조실스님이나 주지스님의 출입문이기 때문이다.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앞에 붙이고 두 손으로 받들어 문을 열며 신을 나란히 벗어놓고 들어서서는 돌아서서 문고리를 잡고 받들어 조용히 닫는다.
- 7) 법당 안에서의 예절
법당 안에서는 언제나 발꿈치를 들고 다녀야 하며 다른 신도가 예배할 때에 그 머리맡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문을 닫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반배하고 합장 한 채로 부처님 앞으로 나간다. 향을 올릴 때는 불을 붙인 후 두 손으로 받들어 이마 위로 올렸다가 가슴 앞쪽으로 다시 내린 다음 왼손을 떼어 오른 손을 받치면 서 향로에 꽂는다. 다시 합장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반배를 한 다음 합장한 채 뒷걸음으로 제자리에 돌아간다. 부처님을 정면에서 예배하는 것은 조실 스님이나 주지 스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신도는 스님이나 웃어른과 나란히 예배치 말고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한다.

-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108배 -

- 1) 절을 하는 의미
마음이 어지럽고 약하며 탐심이나 진심이나 차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절을 계속하면 나쁜 마음이 일지 않고 마음이 가리얏으며 침착해지고 주의력이 집중되며 마음의 자혜가 열린다. 이때 형식적으로만 해서 안 되며 오직 정성으로 해야 한다. 절은 자신을 낮추고 모든 악을 끊는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절은 기본적으로 '굴복무명 공경진성(屈伏無明 恭敬眞性)', 즉 '무명(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참된 성품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다.
- 2) 절 하는 법
- 반배를 한 뒤 선 자세에서 두 무릎을 조용히 굽히면서 합장한 손에서 왼손을 떼어 가슴에 붙이고 오른 손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온 몸을 엎드린다.

- 동시에 손을 뒤집어 손끝을 약간 위로 쳐들어서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것처럼 해야 하며 이때 오른 발을 밑에 왼발이 위에 가도록 발등을 얹어야 한다.

- 일어날 때는 손을 다시 뒤집어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면서 왼손이 먼저 앞가슴에 오도록 하며 오른손이 나중엔 오면서 왼손과 붙여서 합장이 되게 하면서 반대 동작으로 조용히 일어난다.

- 삼배 중 마지막 절을 할 때는 이마를 바닥에서 떼고 난 후에 잠시 합장하고 바로 이마를 땅에 대고 양손을 올리며 절을 하는데 이것을 고두배라 한다. 고두배란 삼배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이며, 지극한 존경심에 대한 여운적 표현이다.

- 알아두면 좋아요.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들 -

1) 면목(面目)

본래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용모'라는 의미로도 쓰였으며,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본성이 가장 중요함을 이르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면목이라는 말은 체면이나 남에게 드러내는 얼굴을 말한다.

2) 아수라장(阿修羅場)

아수라가 제석천(帝釋天 인드라신)을 상대로 싸운 곳이라는 뜻. 아수라는 '수라'라고도 하는데 범어 'asura'의 음역. 고대의 인도에서부터 아수라는 '전쟁과 투쟁'을 일삼는 일종의 귀신으로 여겨지던 존재이나 후에 불교의 수호신으로 흡수되고 귀약하면서 불교에 순종하는 신이 되었다.

3) 이판사판(理判事判)

이판사판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합성어.

조선시대에는 사찰에 이판승과 사판승이 구분되어 있었다. 이판(理判)이란 참선하고 경전을 강론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스님을 사판(事判)이란 생전에 종사하고 절의 생활을 꾸려 나가는 스님들을 말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스님의 신분은 아주 낮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면서 스님이 성인으로 드나드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스님이 되어 이판이 되고 사판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판사판'은 막다른 데에 이르러 더는 어쩌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막간다는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4) 방편(方便)

불교에서 방편이란 어떤 사람에게 걸 맞는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이란 뜻으로 쓰인다.

5) 찰나(刹那)

찰나는 범어 Kṣana의 음역으로 시간 단위 중에서 가장 짧은 단위를 말한다. 불경 내용에 따르면 1찰나는 대략 7분의 1초의 시간이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한다.

6) 야단법석(野壇法席)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은 법당이 아닌 곳 숲 속이나 넓은 광장 등에 임시로 단을 마련하여 야외법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떠드는 시끄러운 판'이란 뜻이 되었다.

■ 샘들 연락처

김수자 010-3207-8782
 김수진 010-4455-3452
 오피션 010-2526-9819
 제천간디학교 043)653-5792

주제	이름 및 관련단체	연락처
제주체험	고제량 (주)제주생태관광	010-6617-0103 / 064-784-4256
	문용포 곳자왓작은학교	016-691-7099
	변진현 학교밖의작은학교 '오름'	010-4379-5774
	김남흥 북촌돌하르방공원	064-782-0570 / 010-4690-0570
	정봉선 EM센터	064-738-7868 / 010-6780-0956
	박운애(강정마을)	010-4571-0988
	고동원 굴메 배울터	010-3696-3829
숙소	절물자연휴양림	064)721-7421
	문화교육 들살이	064)782-0196
		마고할미 010-2827-0665
		비목 010-7278-7279
	기원정사	064-792-8518
	강정마을	064)739-2067
교통편	한일고속	062)362-3116
		1688-2100 완도 061)554-8000
	모슬포	064-794-3500 / 794-5490~1
템플스테이	광주 무등산 증심사 / 송희란	062-226-0108 / 010-4542-0571
타 대안학교 탐방	산청간디학교 (박종화 010-4547-8949))	055)973-1049 f>055)973-1204
	금산간디학교 (민태설 010-3397-6330)	041)753-2586 f>041)752-6693
	(서울 고등) 꽃피는학교 (황동하 010-3153-6727)	02)766-0922 f>02)766-0923
	산돌학교 (전수영 010-4350-3755)	031)511-3295 f>031)511-3296
	지혜학교 (이남옥 010-2054-2272)	062)962-0986 f>062)962-0982
	산티학교 (홍진관 010-9050-2557)	
마무리 모임	공주 서명아 할머니댁 (명아빠 010-8637-1709)	충남 공주시 정안면 봉강리 148
기타	인솔교사 여행사 보험	현대해상